



CNU 드림 매뉴얼

열린
꿈
펼쳐
보는
책

학생지원 프로그램 생생 가이드
THEME BOOK 2 전남대학교 테마북

CNU
연혁
편찬
판독서
드림
매뉴얼
가
권

발행일 2011.02.

발행처 전남대학교 기획처 (홍보팀)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1132 / www.jnu.ac.kr

발행인 김유 수 (총장)

편집인 서순 필 (기획처장)

기 획 박세송 (홍보팀장)

취 재 정선희, 강현미 | **사진** 박성배 **일러스트** 홍권표

편집디자인 엔터_062-236-2110 / 디자인 엄서연

인쇄 성우애드컴_02-890-0900

이 책은 전남대 학교 기획처 홍보팀이 기획하고, 기초교육원, 국제협력본부, 학생지원과, 언어교육원, 취업지원과, 교육지원과, 학사관리과, 여수캠퍼스 교학과 등 학생지원부으로
그림을 운영하는 각 부서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전남대 학교에 있습니다.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드림매뉴얼은

2011년 월 일부터

를 꿈꾸는

소유입니다.

연락처:

이 매뉴얼은 내 꿈을 향한 우여곡절의 여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뜨거운 4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오니 습득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매뉴얼
100%
활용법



받는 즉시 이름을 적어 소유관계를 표시한다. ▶ 목차를 찬찬히 확인하고 끌리는 내용부터 읽는다.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체크한다. ▶ 프로그램 완전정복을 위한 나만의 로드맵을 그린다. ▶ 자격조건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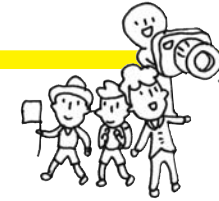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나만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체크해보고 주위에도 권한다. ▶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맥은 수시로 관리한다. ▶ 보람 있는 대학생활,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 졸업한 뒤 흐뭇하게 꺼내볼 수 있는 대학시절 추억의 소장품으로 삼는다. ▶





- 004 드림메뉴얼 '100% 활용법'
- 006 목차
- 008 드림메뉴얼 입문자가 새겨야 할 교수 비법
- 010 교수들이 들려주는 시기별 가이드라인



012

알찬교육 프로그램

- 016 알찬교육 드림캘린더
- 018 공부일촌
- 021 한울학습
- 024 다독다독
- 028 이뿃고-교학상장
- 031 U-makers
- 034 누리드리
- 037 문제해결능력 향상 연구프로젝트
- 046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 049 우수보고서 공모
- 052 학습법 워크숍
- 053 맞춤형 글쓰기 워크숍
- 054 알찬교육 보고서, 비법을 훑쳐라
 - 공부일촌 8주차 학습보고서
 - 한울학습 8주차 학습보고서
- 065 나만의 알찬교육 프로그램



068

국제화 프로그램

- 072 국제화 드림캘린더
- 075 국제화 과정
- 078 합격생 영어캠프
- 081 합격생 영어캠프 교육조교
- 084 희망해외연수
- 087 제2외국어 연수
- 089 교환학생
- 093 국제여름학교
- 096 국제인턴
- 099 국외봉사
- 103 세계교육기행
- 106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 109 이끼미-따라미
- 112 국제여름학교 2기 및 국제겨울학교
- 113 모의토익
- 114 외국어 Up-grade 프로그램
- 115 나만의 국제화 프로그램



118

통섭인재 프로그램

- 122 통섭인재 드림캘린더
- 124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 126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프로그램
- 129 국토대장정
- 133 지리산 종주
- 136 남도문화유산기행
- 139 전공멘토링
- 142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 143 학생교류
- 145 나만의 통섭인재 프로그램



148

취업지원 프로그램

- 152 취업지원 드림캘린더
- 154 취업 서포터
- 157 커리어우먼 스쿨
- 160 취업 에이스
- 163 취업두드림 한마당
- 165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 166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 167 Job Matching 프로그램
- 168 진로아카데미 / 취업캠프
- 169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 생애와 직업탐색
- 170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 현장실습
- 171 핵심취업 동아리
- 174 청경 도전100
 - 우수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 175 여수캠퍼스 취업지원 공간
- 177 선배들의 자기소개서 비법을 훑쳐라
 - 자기소개서 1, CJ 제일제당
 - 자기소개서 2, GS 건설
- 185 나만의 취업도전 프로그램



188

드림플러스

- 190 장학금
- 194 자기계발활동기록부
- 196 도전점수

Contents

드림매뉴얼 입문자가 새겨야 할 고수 비법

일상 총만, 내공 만땅 끝없는 욕심의 세계

늘 자신 있어 보이고, 어딘가 활기차 보이고, 뭔가 바빠 보이는 선배나 동기들이 있는가? 학교에 내는 등록금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만 같은 그들은 분명 여러분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소위 '프로그램 고수' 들은 매우 흡사한 행동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읽고 한 가지라도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도 고수 코스 입문자!

1 시작 페이지는? CNU홈!

"오늘은 또 무슨 공지가 났나"? 아침 눈뜨자마자 체크한다. 그들 PC의 시작 페이지는 틀림없이 CNU홈 확률이 90% 이상. 국제협력본부, 취업지원과, 기초교육원, 언어교육원 등등, 학교 관련 홈페이지는 모두 즐겨찾기로 고정되어 있다. 학교 게시판도 그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정보를 찾아 온-오프라인을 훑는 그들은 매의 눈

2 '될까?' 보다 '일단 하자!'

그들은 실력보다는 마음 기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안 빠지고 내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머리 무겁게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들이템의 미학'을 실천한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기억하라. 선착순으로 뽑는 것도 있으니 느장부리다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빠른 정보 습득과 번개 같은 클릭은 기본이다.

3 안 되면 준비해서 하면 되지!

'이거야! 생각했는데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들의 대처법은?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기! 특히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여학생적 등을 요구하니 최소 6개월~1년을 꼬박 투자하기도 한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1년이 대수인가? 면접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다른 프로그램까지 섭렵할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고수!

4 스펙만 얻나? 사람도 얻는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학교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해 본 그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저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그 사람, 여기서 또 만난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서로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막강 인맥'을 완성한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로그램 욕심

그들은 학교 프로그램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한다. 좋다는 걸, 얻는 게 많다는 걸 아니까 다른 것들도 자꾸 욕심이 난다. 그러다 두세 가지 활동이 겹쳐 비용을 지출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업체 홍보대사나 정부 부처 인턴 등 교외 활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정해진 코스.

고수들이 들려주는 시기별 가이드라인

차근차근 꼼꼼하게 핵심은 적시태!



전남대학교 학생 모두가 대학생활 동안 같은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남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무작정 따라 할 필요는 더욱 없다.

자기 자신의 결심과 계획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먼저 그 과정을 거쳐 간 선배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라면 대학생활을 안내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을 듯 하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차근차근 건강한 사회진출을 준비해가는 방법을 알아보자.

핵심 포인트	전공	영어
취업정보 수집, 구직활동 시작	면접 등 취업 관련 강의 및 특강을 꼼꼼하게 챙겨 듣자	매회 어학시험 응시 통해 최고점수 확보, 영어 면접 준비, 영어PT, 비즈니스 영어회화 준비
취업목표 기업을 정하자, 구체적인 취업준비 시작	본격적인 학점 관리 시작, 평균 3.5 이상 유지	영어회화능력 집중 향상(OPIC, TOEIC Speaking)
학점관리에도 좀더 신경 쓰자	전공과목 기초 다지기, 학점은 최소 평균 B학점 이상 유지 정기 토익시험 응시, 꾸준히 준비하자	해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도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적성을 파악하자	여러 분야 강의를 수강하며 나의 적성을 파악해!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전공에 흥미 붙이기	토익시험 등으로 나의 수준 파악, 나에게 맞는 영어공부 방법 찾기

인맥	동아리	공모전
취업에 도움되는 인맥 형성, 캠퍼스 리크루팅 적극 참여, 취업 성공 선배 및 인사담당자 만나기, 명함수집	같은 회사나 직종 취업 스터디 그룹 결성 입학 전형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스터디	인턴 기회를 주거나 입사 특전 및 가산점을 주는 공모전에 집중 도전
학원수강이나 스터디그룹 등 회화공부 / 매회 어학시험 응시 통해 최고점수 확보 / 나의 롤모델 찾기 / 성공한 CEO, 전문가 등 강연에 적극 참가, 직접 만남도 시도	보다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 취업 관련 소규모 스터디 모임이나 공모전 준비모임 활동	취업이나 진로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특정 분야 공모전에 도전 (디자인, 기획전략, 마케팅 등)
인맥 넓히기, 타과, 타동아리, 타대학 학생과 다양한 인맥 형성	학과나 동아리 행사 등을 직접 기획, 진행해보기 그 과정에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등 배우기	해외탐방이나 문화답사, 대장정 같은 경험 중심의 공모전 도전
인맥 쌓기 중점 준비 선배, 교수님, 강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여하자	취업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벤트성 공모전 참여

“공부하는 재미 좀 느껴볼래요?”

“우리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예요. 어떻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게 해 줄 것인가? 신입생이라면 좀더 빠른 대학 적응과 전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수와 함께 하는 ‘이뤘고-교학상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걸 망설이지 말아야 내 전공이 선물해주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선배와 함께 하는 ‘한울학습’은 시험 보기 전에 보는 ‘족보’와도 같죠. 함께 공부하면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진짜 대학 아닐까요?”



알찬교육 서포터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박덕희 선생님

알찬교육
Dream Manual

학교, 학원, 독서실, 집, 다람쥐 쳇바퀴 돌던 시절 끝났어
 이제 공부 좀 쉬고 싶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야 바르스 진정한 공부의 재미,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다.
 교수님, 선배, 동기들과 자유롭게 팀을 짜고
 내 전공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대학생다운 글쓰기 실려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길러보자.
 학문의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자,
 얼마나 불행한가?
 지금 당장 알차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GO! GO!

공부
 이기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일차년도교육 드림캘린더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 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해 학습공동체 '공부일촌· 한울학습' 기초교육원 062-530-2332			■	■					■	■		
독서토론 공동체 '다독다독' 기초교육원 062-530-2335			■	■					■	■		
신입생-교수 세미나 '이뤘고- 교학상장' 기초교육원 062-530-2334			■	■					■	■		
U-러닝공동체 'U-makers' 기초교육원 062-530-2336			■	■					■	■		
세계 학습공동체 '누리드리' 기초교육원 062-530-2333			■	■					■	■		
문제해결능력향상 연구 프로젝트 교육지원과 062-530-1023					■	■	■	■	■	■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기초교육원 062-530-0916			■	■	■	■			■	■		■
우수 보고서 공모 기초교육원 062-530-2335		■	■	■	■	■		■	■	■	■	■
학습법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2				■	■	■				■	■	■
맞춤형 글쓰기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5				■	■	■				■	■	■

활동기간 ■ 모집기간 ■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01

공부하자 친구야!

공부일촌

‘공부일촌’은 창조적, 도전적, 협력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 전공이나 교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일정한 학습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마음 맞는 멤버들끼리 학기마다 팀을 이뤄 신청할 수도 있다. 서로에게 자극 받으면서 성장하는 ‘스스로 학습’, 우리 한번 ‘공부일촌’으로 공부에 중독되어보자.

Program 01. Tip

- **모집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공부일촌 교과목(S1) : 동일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4명 이상 / 공부일촌 자유주제(S2) : 공통 관심 주제를 공부하는 학부생 4명 이상 / 대학원생 공부일촌(S3) : 교과목(전공)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3~5명
- **모집 시기** : 매년 3월, 9월
- **운영 기간** :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대표 : ‘공부일촌’ 운영계획서 작성해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부일촌’ 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② 구성원 : 공동체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부일촌’ 선택 → 신청하기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 **활동 내용** :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정기적 학습, 학습 후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운영 기간 동안 2회 이상 교수면담 실시, 8주 학습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 혜택** 그룹 지원금(그룹당 150,000원)(추후 변경 가능),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2~3

Program 01
제대로 맛보기!

경제신문으로 경제와 세상 마스터

경제학부 <MK STUDY> 권해성, 이소라, 송다빈, 김민희(2학년)

MK STUDY는? 작년 2학기, 전공을 좀 더 쉽게 공부해보자고 신문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경제공부를 하기 위해 올해 1학기 공부일촌을 신청했다. 국내외 정세 파악, 기사 요약과 발표를 통해 발제 능력도 기르고 매경TEST를 풀면서 경제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의 공부법 일주일 동안 신문을 읽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 요약본과 관련 자료를 우리가 만든 싸이월드 클럽에 미리 올린 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스터디를 했다. 주마다 돌아가면서 조장을 하고, 그 주의 조장이 스터디 자료 준비와 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각자 주제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매경 TEST는 기출 문제집을 구입, 자기가 맡은 문제를 완벽히 마



공부일촌은 한마디로 '오미자'. 시직할 때 느낀 도전 의식, 스테디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의 즐거움, 그 반대인 경우의 갈등, 다시 또 어우러지면서 느끼는 현동심, 결과가 좋았을 때 느꼈던 성취감 등 공부의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모두 느끼게 해주었다.

스터해운 뒤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매경 TEST는 각 기업들에서 도 최근 직원 채용 시 고려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이건 우리가 좀 잘한 듯? 성실한 보고서와 싸이월드 클럽. 공부일촌 운영진들이 보고서만으로도 우리 학습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또 스테디를 위해 싸이월드 클럽도 개설했다. 각자 발표 내용과 스테디 시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을 올려서 준비·복습에 능률을 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일촌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을 아무도 몰랐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 무관심했다. 그런데 매주 공부일촌에 대한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뉴스나 수업에서 아는 용어가 많이 들리더라. 또 하나, 꾸준히 신문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스테디는 해체 되었지만 지금도 각자 신문을 읽고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이야기 해 본다.

세가지 TIP 첫째, 보고서는 상세히 풀어서 써라. 운영진이 우리의 보고서를 보고 경제지식이 향상될 만큼. 그렇게 상세히 쓰다보면 그날 공부 내용이 피드백 되고 놀라운 학습효과가 있다. **둘째, 보고서는 돌아가며 써라.** 다른 팀들은 조장 한 명이 매주 보고서를 쓰는 것 같더라. 우리는 주마다 조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 주의 조장이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썼다. **셋째, 날짜와 시간을 지켜라.** 보고서를 정해진 날짜에 올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켰다. 과 엠티가 있어 모두들 파곤에 절었을 때도 그 주의 조장은 보고서를 꼭 올렸다.

02

선배님 도와주세요! 한울학습

선배는 때로 하늘처럼 보인다. 어려워만 보이는 전공공부를 거침없이 하고, 나는 잘 모르는 학교 프로그램 정보도 환하다. 그런 선배에 기대서 전공교과 학습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한울학습' 팀을 짜보자. 전공실력도 쌓이고 선후배 간 돈독한 정도 쌓일 것이다.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끄미와 교과학습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따르미가 참여한다.

Program 02. Tip

- **모집 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한울학습 일반(T1) :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원생 이끄미 1명과 학습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따르미 4명 이상의 학습 모임 / 새내기 한울학습(T2) : 교과목 성적이 A학점 이상인 학부 3·4학년 이끄미 1명과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 따르미 4명 이상의 학습 모임
- **모집 시기 및 운영기간** 매년 3월, 9월 초 /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이끄미 : '한울학습'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한울학습' 선택 → 해당 프로그램(T1/T2)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 신청 완료 ② 따르미 : 공동체가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한울학습' 선택 → 해당 프로그램(T1/T2)선택 → 신청하기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활동 내용**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정기적 학습, 학습 후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 운영 기간 동안 2회 이상 교수면담 실시, 8주 학습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 혜택**(모든 지원은 '공부일촌·한울학습'의 운영 규칙을 따른 그룹에게만 지급됨), 그룹 지원금 (그룹당 150,000원)후후 변경 가능, 이끄미 장학금,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시상
-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 530-2332~3

타의 추종 불허하는 꼼꼼 보고서

농업경제학과 <여신과 아이들>
변아름(3학년), 권혜령, 김성백, 윤진환, 양휴영, 정슬, 이환희(1학년)

활동 자체도 열심히 했지만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매주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때마다 토론 내용을 마치 현장 녹취처럼
생생하게 작성했다. 사진도 꼭 첨부했고 작성자 이외에
모든 팀원들의 감상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팀명이 참 특이하다 상당히 이기적인 팀명이다. (웃음) 이피미 아름 선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이해 과목을 듣는 1학년들이 모였다. 이후에 팀원들이 경제원론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두 과목 공부를 함께 했다.

어떻게 공부했나 일주일에 한 시간씩 두 번 모였다. 한 번은 한국경제의 이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자료조사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한 시간은 이피미 선배가 경제원론 내용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해주는 수업을 했다.

특별했던 점 없나 이피미 선배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금융권 선배님들을 직접 초청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진로계획도 세워보고 진지하게 상담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날이 좋을 땐 야외에서 토론수업을 하기도 했다. 아름 선배가 모임 시간뿐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수업 해 준 것도 고맙웠다.

프로그램 전 VS 후 이피미 내가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준비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선배노릇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웃음) 따르미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다른 팀들은 시험준비를 하면서 족보풀이에 치중한 반면, 우리팀은 시험범위 전체를 이해한 뒤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은 학습이 됐다.

세가지 TIP 첫째,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라. 매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한 팀은 우리밖에 없었다. 둘째, 팀원들의 열정을 보여 주어야 한 사람이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면 우리는 모두가 들어가서 체크하고 댓글을 달며 피드백해 주었다. 보고서에 댓글이 7~8개씩 달리는 팀은 많지 않았다. 셋째, 토론과 발표 스킬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라. 내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익히면 강의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3

행복한 책 읽기, 마음 속 스펙을 쌓아라

다독다독 多讀多督

영어점수, 학점, 봉사활동, 해외연수만 스펙이 아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진짜 스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인지 모른다. 책 읽는 즐거움 속에서 나와 세상의 관계를 깨닫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 고민하면서 마음의 스펙을 쌓아보자. 교수님, 동료들과 함께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토론 공동체에서 인문학의 향기에 취해보자.

Program 03. Tip

- 목적 전남대학교 학부생으로서 교양을 갖춘 학문 통섭형 인재 양성, 학부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기초 능력 배양, 학부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독서 문화 확산
- 모집 대상 전임 및 비전임 교수와 학부생 4~5명으로 구성된 그룹 ● 모집 시기 매년 3월, 9월 초
- 운영 기간 매년 3월~6월, 9월~12월 ● 신청 방법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l.jnu.ac.kr>) 접속 교수 신청 방법 ① 참여 학생이 있는 경우 : 학생과 함께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1' 클릭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② 참여 학생이 없는 경우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2' 클릭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학생 신청 방법 ① 참여 교수 및 동료가 있는 경우 : 공동체 개설 후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1'에서

다독다독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스펙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양해졌음을 느끼고 책 속의 교훈이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지침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말하기 능력이 길러지는 건 뒤이고요.



해당 공동체에 찾아가 '참여하기' 클릭 ② 참여 교수 및 동료가 없는 경우 : 접속 '다독다독' 선택 → '신청하기2'에서 공동체 선택 후 '참여하기' 클릭 ● 활동 내용 2주 1회 총 4회 이상 독서 토론 / 모임보고서 4회 이상 / 최종보고서 1회 제출 / 개인별 서평(희망자에 한해 제출, 우수 서평 선정 및 시상) ● 활동 혜택 도서 구입 및 운영비 그룹 당 30만원 / 4회 이상 모임에 참석한 학생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 우수 그룹 및 우수 서평 시상 / 문학 기행 1회 실시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성력 연구개발부 062-530-2335

다른 활동이 그냥 커피라면, 다독다독은 T.O.P!

법학과 <팍순세>

김원준 교수, 하중숙, 손버리, 안아람, 이두훈(3학년), 신경록(4학년)

우리 팀 '팍순세'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의 줄임말이에요. 법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죠. 법학도인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팀 이름을 팍순세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였다 항상 마음만 있고 리포트, 시험을 핑계로 독서는 뒷전이었죠. 평소 김원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풍부한 지식과 교양에 늘 감탄했어요.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과 함께 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을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번 정기 모임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예비모임을 가져 토론의 질을 높였습니다. 모임마다 리더를 정하고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님 의견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네 권의 책 <링컨의 일생>,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 <자유론>입니다. 고전과 현대서적을 적절히 섞었어요. 미래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골랐습니다. 외우기만 하는 법학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법학도'로의 발전이 우리의 목표예요.

다독다독이 좋은 이유 책은 많은 가르침과 생각의 기회를 줍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수업 이외에 교수님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서 좋아요. 교수님 말씀은 늘 신선하고 우리 시야를

넓혀 주시거든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발표한 뒤 토론을 하다보면 책의 내용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짜릿해요.

세가지 TIP 첫째, 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해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 책을 읽고 현실과 연결시켜 보세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와 대안을 토론하면서 지성인으로서의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셋째, 매 모임마다 리더를 선정하는 게 좋아요. 리더에게 각 구성원들이 작성한 발표문을 주면 리더가 보고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

교수님과 함께, 대학생활의 매력을 찾아서!

이뿔고-교학상장

내가 원하던 전공이 아니라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도무지 전공에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전공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 전공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라면 '이뿔고-교학상장'에 참여해보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 팀을 이뤄 전공과 진로의 운곽을 알아가는 동안 대학생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뿔고-교학상장'을 통해 자기 전공의 매력에 눈뜨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만들어간 선배들이 많음을 기억하자.

Program 04. Tip

● 대상 교수(전임교원) / 학생(신입생, 1학년 복학생, 전파생 및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단, 학생은 1회만 인증 가능)) / 도우미(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 구성 전임교수 1명, 학생 4~5명, 도우미 1명(선택) / ● 모집 시기 및 운영기간 매년 3월, 9월 초/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이뿔고-교학상장' 선택 → 신청하기 게시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지도교수가 활동계획서 작성·첨부 → 공동체 개설 및 신청 완료 ② 학생 및 도우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프로그램 선택 → <이뿔고-교학상장> 선택 → 신청하기 게시판 선택 → 해당 공동체 선택 → 참여하기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활동 내용 주제 : 대학생활, 전공, 진로에 관한 신입생의 이해를 돕는 내용 / 모임 : 2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4회 이상, 교수와 동행 / 모임 유형 : 대학 생활 적응과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형태 / 제출 자료 : 모임보고서, 최종보고서, 도우미 활동보고서, 개인소감문 ● 참여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 그룹 및 개인소감문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4

Program 04
제대로 맞반기!

교수님의 열정에 감염됐어요

영어영문학과 <Radiant 7>

노승희 교수, 정요한, 조해리, 정은솔, 강선희, 김한나, 진옥임(1학년)

우리가 다른 팀보다 뛰어났던 것은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열정적이셨다는 것이다. 지겨운 토론학습이 아니라 현장학습도 하면서 팀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교수님과도 더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과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발표를 하면서 학습적인 효과도 거둔 것 같다. 특히 월봉산 등산이 기억에 남는다. 힙들이 하면서도 서로 손을 끌어주며 등산을 해서 팀워크가 향상됐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교수님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다.

팀명은 무슨 뜻? 노승희 교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빛나는 7개의 별을 뜻한다. 영어영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학과 관련 공부를 하고,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데 모임의 목표가 있다.

어떻게 공부했나? 2주에 한 번씩 모였다. 영어권 대표 국가에 대해 각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와서 영어로 발표하기도 하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본 뒤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다함께 교수님덕분에 월봉산을 등산한 일이 참 특별했다. 일종의 현장학습이었는데, 협동심도 기르고 교수님과도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미국대학의 한국인 영문과 교수가 초청강의 차 우리대학에 왔을 때 다 같이 강의를 듣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막연하기만 했다. '이릿고-교학상장'을 통해 교수님을 만나고 팀원들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가지 TIP **첫째, 교수님과 꼭 친해져라!** 1학년은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아 도전장학생 등 여러 프로그램의 추천서가 필요하거나 조연을 구하고 싶을 때 마땅히 찾아볼 교수님이 없다. '이릿고-교학상장'을 통해 교수님과 친분을 쌓으면 꼭 도움을 주실 것이다. **둘째, 보고서 작성을 꼭 해보자!** 보통 보고서 작성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몇몇은 쓸 기회가 없기도 한다. 귀찮다고 안 쓴다 하지 말고 꼭 해보자. '이릿고-교학상장' 활동 중 무엇을 했고, 그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셋째, 열심히 하라!** 이릿고 활동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 교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05

공부도 작품이다

U-러닝공동체 'U-makers'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UCC가 인터넷에 한가득이다. 남이 만든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동영상 제작에 도전해보자. 단, 테마는 강의, 파트너는 교수님이다. 평소 관심 있고 흥미로웠던 전공 강의를 e-learning용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본다. 영상기획부터 촬영기술, 동영상 편집과 활용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Program 05. Tip

- **모집 대상** 전임 및 비전임 교수 1인을 포함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3명 이내
- **모집 시기** 매년 3월, 9월
- **운영 기간** 매년 3~6월, 9~12월
-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 :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l.jnu.ac.kr>) 접속 → 로그인 → '아해 학습공동체 U-makers' → 신청하기 → 우측 하단 '신청하기' 선택 → 활동계획서(알림마당 자료실 서식모음 또는 첨부파일 참고) 작성하여 첨부 → 공동체 개설 ② 학생 : 지도교수가 공동체 개설한 후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l.jnu.ac.kr>) 접속 → 로그인 → '아해 학습공동체 U-makers' → 신청하기 → 해당 그룹에 참여
- **활동 내용** 10주 동안 5회 이상 브레인스토밍, 스토리보드 작성 통해 분야별 교과 콘텐츠 제작 / 2주 1회 모임 후 모임 보고서 게시/ 최종 결과물 6개 이상의 콘텐츠 제출(콘텐츠는 한 차시 당 25분 ~ 30분 이내로 제작)
- **학생 혜택** 인증 학생 지원금 200,000원 및 자기개발활동기록부에 등재 / 우수 그룹 구성원은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교수 보조 요원으로 추천 / 우수 그룹에게는 그룹 지원금 외에 별도 시상금 지급 / 지원금 및 시상금(우수 그룹은 인증 그룹의 20%)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U러닝 연구개발부 062-530-2336

입체적 촬영 · 신선한 편집으로 완성도 높였다

독일어문학과 <피닉스>

조길예 교수, 이주아, 나은주, 고승희, 정경아(4학년), 박진호, 김나윤(3학년)

아이디어가 많았다.

깔끔하고 입체적인 화면과 성의 있는 편집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

교수님께서 촬영경험이 많아서 카메라 각도나 촬영법 등은

즉석에서 배웠고 의상이나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다른 팀 결과물을 보니 교수님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많던데

우리는 진짜 강의처럼 박수도 치고 토론도 하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다.



<피닉스> 우리팀의 3, 4학년 전공수업인 <독일영화분석>에서 만났다. 교수님께서 무료 동영상 교육도 받고 영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소개해 주셨다. 3명 이내였는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섯 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 때 작년 우수팀 등 쟁쟁한 학생들을 보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즐겁게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우리의 작업 방식 매주 한 번씩 모여 촬영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획, 촬영, 편집, 내레이션 등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했다. 독일영화분석 수업 틀을 바탕으로 <화니 핑크>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주제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촬영했다. 30분짜리 영상 두 개를 촬영하는 데 6~7시간이 걸렸고, 편집도 그만큼 걸렸다. 우리는 특별히 카메라를 두 대 대어했다. 하나는 교수님을, 나머지는 우리들이 수업 듣는 모습을 측면에서 촬영했다. 촬영 후에 영상 중간 중간에 영화 장면이나 관련 영상, 감독 인터뷰 등을 편집해서 심입해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에 남거나, 아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도입부에 쓰일 벗꽃 풍경을 찾아 돌아다녔고, 촬영세트로 쓰인 강의실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꾸었다. 주말에 지정 넘도록 편집 작업을 하기도 했고 최우수상 상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하지만 함께 고생했는데 규정상 두 사람만 인증을 받아 안타깝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다. e-러닝 콘텐츠 제작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참여 전 VS 후 모두 기계치에 가까웠고 동영상 편집에 능숙한 두 친구를 빼고는 컴퓨터 작업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기초교육원에서 사이버강좌 제작도구인 'eStream Presto'를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교수님과도 정말 가까워졌다. 카메라 각도, 화면배치, 구성 등을 고려하면서 주체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U-makers는 우리들의 'e-성장 프로젝트'였다.

세가지 Tip 첫째,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솟고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둘째, 깔끔한 화면을 연출하라.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물들의 웃음 밝게,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게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겁먹지 말고 참여해라. 하다보면 다 된다.

06

글로벌 스터디 그룹

누리드리

캠퍼스를 거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전공의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글로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이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국제적인 지식 교류에 도전해 보자. 교과목 관련 주제를 학습하는 그룹과 외국인 학생의 전공·한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그룹을 선정하여 학습비까지 지원해 준다.

Program 06. Tip

● **모집 대상**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① 글로벌 공부일촌(G1) : 외국인 학생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② 글로벌 한울학습(G2) : 1명의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이끄미와 3명 이상의 외국인 또는 한국인 학생 따르미로 구성 ※ '공부일촌·한울학습'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 불가

● **모집 시기 및 활동기간** 매년 3월, 9월초 / 3월~6월, 9월~12월 ● **글로벌 공부일촌(G1) 신청 방법** 글로벌 공부일촌 대표 :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공부일촌(G1)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및 대표 신청완료 / 글로벌 공부일촌 구성원 : 공동체 개설된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공부일촌 선택(G1) → '신청하기' → '참여하기'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글로벌 한울학습(G2) 신청 방법** - 이끄미 :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한울학습(G2) 선택 → 신청하기 → 공동체 등록 및 운영

학과 공부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많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사고의 폭도 넓어졌다. 갈수록 우리 학교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대, 사범대 등 각 학문의 특색을 살려서 세계를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또 취업 위주로 돌아가는 대학생활에서 진정한 지식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드리'를 강력 추천하고 싶다.



계획서 첨부 → 공동체 개설 → 신청완료 ※이끄미 자격 기준아래 3가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 충족해야 함) ① 전공 학습 : 해당 교과 A학점 이상인 학부생이나 전공 대학원생 ② 외국어학습 : 공인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자 ③ 지도교수 추천 학생 - 따르미 : 공동체가 개설된 후 홈페이지 접속(포탈 ID 로그인) → '누리드리' 글로벌 한울학습(G2) 선택 → 신청하기 → '참여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활동 내용** 매 학기 8주간 주 1회 이상, 2시간 이상 학습, 주별 학습보고서 제출 / 2회 이상 교수면담 및 지도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학습보고서 첨부 / 8주 학습 후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활동 혜택** 그룹 지원금 (그룹당 150,000원(추후 변경 가능) / 자기개발활동기록부 기재/ 우수그룹 시상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3

국제적인 지식 교류 뿌듯해요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화연구>
재학생_ 이수진(석사3학기), 김서라(2학년)

어떻게 되었나? 모두 손희하 교수님의 지도제자들이다. 교수님 제안으로 누리드리를 하게 됐다. 월간석보, 국어를 함께 했는데, 정해진 부분을 공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공부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참여했다. 학습 준비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된 것 특히 '국어사'에서 고대국어와 몽골어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데, 잘 몰랐던 발음의 차이, 옛날 중국어와 비슷한 한국어의 특성 등을 유학생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국제적인 지식의 교류가 이런 것인가,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유학생_ 유가양(박사2학기), 김미월(석사4학기), 장준래(석사2학기)

이게 참 좋았다 한국어 교사가 꿈이어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어 공부는 아직도 많이 어렵다. 하지만 누리드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한국의 한지움에 대한 공부도 옛날 중국어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전남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에 남는 것 스터디가 다 끝난 뒤 지원금으로 강원도에서 열린 국어사학회에 다녀왔다. '어휘사'가 주제였는데, 다른 학교 외국인 학생들도 만나고 실제 발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07

연구로 승부하자

문제해결능력 향상 연구프로젝트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가 떨어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 결과로 상사들을 놀라게 해줄 방법이 있다. 바로 학교에서 미리 그 과정을 훈련해 보는 것. 전공과 관련한 연구 과제 선정부터 진행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교수님이나 대학원 선배의 지도 아래 5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 향상 연구프로젝트로 사회현장 적응능력 지수를 끌어올려보자.

Program 07. Tip

- **모집 대상** 공고일 현재 학부 2~4학년에 재학(2학기 휴학 예정자는 지원 불가)중인 학생 중 개인 또는 팀(2~5명 이내)로 300개 과제 내의 ① 250개 과제 : 신규 참가자 선정 지원 ② 50개 과제 : 전년도 우수 보고서 제출자 및 잠재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심화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우수연구자 계속 지원
- **모집 시기** 매년 5월중
- **활동 기간** 매년 6월~10월
- **접수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먼저 이코미(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대학원생)를 정하고, 이코미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정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선발 방법** ① 학생은 이코미(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대학원생)를 정하고, 이코미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정한 후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

속 학부(과)에 제출 ② 학부(과)장은 과제의 타당성, 연구 수행팀 구성 내역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③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 지원팀에서 정한 자체 기준에 의거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의 과제 선정의 타당성, 연구수행자(팀) 자격 및 구성 내역 등을 평가하여 대학별 배정 과제수 범위 내에서 최종 과제 수행 대상자를 선발 ● **활동 내용**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이코피를 통해 1대1 지도하여 프로젝트 수행 / 전문가로 구성된 본부 지원팀, 단과대학 지원팀과 과제 수행자 전체 워크숍 1~2회 실시 / 프로젝트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논문)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활동 혜택** 프로젝트 수행 경비 지원(1과제당 800,000원(2인 과제 기준 내외) / 1대1 이코피 지원 및 논문작성 워크숍 실시(1~2회) / 우수 논문 시상 및 우수논문집 발간 ● **문의** 교육지원과 062-530-1023

2010년 286과제, 연구도 도전이다

2010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교통수요관리계획’ ‘공기 중에서 사용가능한 탄소발열체’ 등 심화과제 14개를 비롯해 총 268개 과제를 수행했다. 경영학부에서는 용봉골 소규모 영세기업 문제를 연구하고,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찾기도 했다. 공과대학에서는 저탄소 녹색 캠퍼스 실현방법, LED 등 첨단소재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과제가 진행됐다. 인문계열에서도 첨단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복지 개선 방안, 노년층의 일,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미지 연구 등 학술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다. 각 단대와 학과(부)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 나는 어떤 연구에 도전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변화에 대한 조사
간호학과	자이존증감,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학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사례관리 효과분석-관절통증 대상자 중심-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관계 연구
간호학과	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경영학부	경영대DB 구축과 장학금 모색방안
경영학부	고객센터의 명품화 추진 및 서비스 개선 방안
경영학부	퇴직연금 투자전략
경영학부	녹색 성장을 위한 홍보 방안

경영학부	LBG의 중요성 인식과 성공적인 활용 방안 모색
경영학부	동아시아의 노동과 인적자본
경영학부	광고를 통해 본 마케팅의 중요성
경영학부	조직행동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영학부	조직내에서 여성의 리더십 향상방안
경영학부	친환경농업상품의 창업과 판매증진 연구
경영학부	정부의 3D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허와 실
경영학부	프로야구 구단의 특성과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부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 분석
경영학부	마케팅 분석을 통한 향후 전략
경영학부	나의 스피치에 날개달기
경영학부	한국기업 광고의 특색
경영학부	명품 한국을 향한 프로젝트
경영학부	용봉골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경영학부	녹색 마케팅의 활용방안
경영학부	탄소시징과 광주전남 녹색 발전 방향
경영학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시 풋옵션 콜옵션의 관계
경영학부	금융상품시장 확대에 따른 감독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부	국제금융 기간 중 환율변동성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부	회계실무 교육의 전산화 활용 방안
경영학부	88만원 세대 청년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영학부	LG트롬 세탁기를 통한 소비자 행동 분석
경영학부	대학과 학생의 소통문제 해결
경영학부	현대 무역에서 국제 물류의 발전 방향
경영학부	고도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의 연계 방안
경영학부	지역잠재력 조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경영학부	공정무역에 관해서(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환경공학과	음식물 쓰레기 분해를 위한 균 분리동정
환경공학과	하수 내 철 전기분해에 의한 인 제거 효율 분석
환경공학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설계에 관한 연구
환경공학과	Biomass인 파래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생산을 위한 최적조건 검토
산업공학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연구
산업공학과	ALA의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조건을 찾기위한 SOM에 의한 형광스펙트럼의 Classification
산업공학과	정규분포의 가설검정의 검사특성곡선의 엑셀 프로그래밍
기계시스템공학부	고체면과 충돌하는 액적 충돌의 가시화
기계시스템공학부	박막형 소형 X-선 거울의 제작
기계시스템공학부	배터리 주위 열 유동 해석
기계시스템공학부	공기순환용 팬 전산유체해석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 자율 수직 이착륙 소형 비행체 개발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LED 발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광·추출 효율의 향상에 관한 연구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optical waveguide 제조
응용화학공학부(광·전자화공소재전공) PMMA/PVDF 혼합물의 연신비에 따른 복굴절 변화측정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페 슬러지 재활용 광촉매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방지 기능을 갖는 콘크리트 시면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광촉매 TiO2를 이용한 LED 탈취기 제조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리튬2차전지용 탄소나노섬유 기반 음극제조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레이놀즈식의 증명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TiO2 증착 및 광촉매 특성 평가
응용화학공학부(정밀화학전공) 제지 폐수를 활용한 제지 첨가용 자원순환형 산화티탄 개발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삼으로부터 genistein의 추출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물유리를 이용한 실리카 에어로겔의 제조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에탄올 공정 모사 및 최적화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냉장고의 열역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소비 전력 절감 방안 모색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에틸렌 제조공정 공정 모사
응용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저탄소 녹색 캠퍼스
건축학부 한국에 현존하는 일본식 목조건축과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건축적 특성의 비교 연구 -구 보성여관을 중심으로-
건축학부 청감실험을 통한 표준중격원과 실중격원의 유사성 비교
건축학부 황토보드의 흡음성능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건축학부 전주 한옥마을의 사운드 스케이프
전기공학과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한 LED조명 카운터
전기공학과 LED소재를 사용한 샤워기의 원가절감
전기공학과 자동주차 시스템
전기공학과 VS1033을 이용한 대용량 USB 스토리지에 있는 MP3 파일 재생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Polypropylene/Silica 복합체를 이용한 밀폐형 Ni-MH 이차전지용 수지 개발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광변색성 고분자(Photoreponsive Polymer)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PVA/Chitosan 복합체 나노막의 제조와 용질의 투과특성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공기 중에서 사용가능한 탄소발열체
토목공학과 카스트퍼를 고려한 주치구획 단위 선정 및 개선방안 제시
신소재공학부 첨가원소가 Si함금에 미치는 영향
신소재공학부 OLO 합성 최적화
신소재공학부 생체친화성을 위한 임플란트 표면처리 공정기술 개발
신소재공학부 n형 반도체(Nb doped SrTiO3) 열전재료의 합성 및 열전변환 효율 평가
신소재공학부 P-type 열전재료 물질 합성, 특성평가 및 셀 제작
신소재공학부 ZnO의 합성 및 도핑에 따른 열전효과 특성 평가
신소재공학부 R.F. Sputter 방법에 의한 WC의 C-EN코팅 특성에 관한 연구

신소재공학부 H.A. coating by Sol-gel method on Ti-nanotube
신소재공학부 PLD법을 이용한 CZTS 태양전지 흡수층 제조
신소재공학부 Electrodeposition법으로 증착된 Cu(In,Ga)Se2 박막형 태양전지 흡수층의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박막의 특성 분석
전자컴퓨터공학부 LED를 이용한 가시광 무선 통신 직렬 데이터 전송 연구
전자컴퓨터공학부 VLC를 이용한 공연문화 조성
전자컴퓨터공학부 WLAN대역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전자컴퓨터공학부 이동 통신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필터등가회로 연구
전자컴퓨터공학부 가시광통신의 RGB LED를 이용한 다파장 정보전송
전자컴퓨터공학부 고품질네트워크 보안감시시스템을 위한 고해상도변환모듈/ 얼굴인식 모듈개발
전자컴퓨터공학부 안드로이드 Mobile Platform을 이용한 위치기반의 SNS구현
전자컴퓨터공학부 VLC통신- 문자열 전송 모듈 개발
전자컴퓨터공학부 Lab View와 CCD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LED검사 시스템
전자컴퓨터공학부 Semantic Web Framework
전자컴퓨터공학부 Speech Enhancement using MMSE, Log-MMSE and Wiener Filtering
전자컴퓨터공학부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연구
응용식물학전공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벼생산기술의 미래 패러다임 연구
원예생명공학전공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벼도열병의 방제는 가능할까?
생명화학전공 잔류농약의 총상이섭취량 조사(TDS)연구
식품공학전공 일반 배추김치와 사찰식 배추김치의 미생물 변화와 이화학적 특성 비교
식품공학전공 시장 유통중인 막걸리 저장 중 품질변화
식품공학전공 초고추장의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배합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응용생물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화분 특이적 발현을 유도하는 cis-acting element 분리 및 특성연구
임학과 소나무림과 굴참나무림의 간벌처리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비교
임학과 아스파라거스 분말을 이용한 축의 개발
임산학전공 야구배트의 부위별 진동거동 관찰
임산학전공 목재부후균 및 담자균을 이용한 Sesquiterpene류의 생물변화
임산학전공 열전도 측정장치를 활용한 건축체 단열효과 비교
동물자원학부 계란의 부화실험을 통한 유정란의 품질분석 연구
동물자원학부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육 가공품 제조기술 개발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복지현황과 개선방안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수문해석을 위한 CAT (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모형적용성 평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흡착제를 이용한 토양의 중금속 유효도 감소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강우 계급별 논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연구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수생식물과 인산흡착제를 이용한 수질 인산 제거 복합 기술 개발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토양탄소격리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작업 편이장비의 불편사항 개선
법학과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 참여

법학과	For development of ICC
물리교육과	고등학교 물리실험에서 오차의 원인분석과 해결
물리교육과	학생과 대중 속에 쉽게 다가가는 최신 물리 교육 자료 개발
유아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연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공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어교육과	버마 민주주의 전개 과정의 이해
화학교육과	카페인 추출을 통한 음료의 일일 권장 섭취량 결정
교육학과	DISC 행동유형에 따른 학습법 효과
국어교육과	국어교과학적 활동과 문화분야의 문제 해결
지리교육과	GIS를 이용한지리과 교수학습자료개발
지리교육과	지리학적 접근을 통한 전통 취락 가꾸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
지구과학교육과	광주 북부 지역 토양의 입지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 조사
역사교육과	지역 역사 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제작: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수학교육과	쌍곡원반위에서의 타일링(Tiling)의 구성과 그 응용
수학교육과	그래프 이론에서의 선형대수
윤리교육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된 공중체 의사의 강화를 위한 도덕윤리과 수업방안
생물교육과	유전자(Noble gene)의 기능 연구 방법의 이해 및 실험적 시도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BIL 기숙사 거주 여대생들의 식습관 실태와 급식 만족도 조사
가정교육과	청소년의 외모관리 및 외모 만족감과 대인관계
특수교육학부	수업 행동 훈련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수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부	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가 자폐증주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체육교육과	과체중 남녀 대학생의 일상 신체 활동량이 심폐기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과	서열관계와 권위주의 성격이 참견 행동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과	암묵적인 서열성에 기인한 행동 양상의 차이
문헌정보학과	독서캠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지도 방법 연구
문헌정보학과	Virtual Library로서 라디오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인류학과	식물유체 분석을 통한 고식생의 복원
인류학과	금강상류지역 지식모사의 변화과정 연구
인류학과	발화구에 대한 실험고학적 접근
인류학과	야구장 방문과 여가활동의 양상 -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관람객을 중심으로 -
생활환경복지학과	최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및 주거생활 실태 연구
생활환경복지학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년기 일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생활환경복지학과	보육 시설 평가 인증제도에 따른 보육 환경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식품영양학과	분열효모의 스트레스 저항성에 대한 TRF32의 기능연구
식품영양학과	죽순 떡갈비의 준수 첨가량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식품영양학과	시중에 유통 중인 막걸리의 품질 표준화 제시를 위한 이화학적 특성 비교
식품영양학과	여주(Momordica charantia L.)추출물의 영양 생리학적 특성
의류학과	우리나라 장신구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수의예과	실험 동물에서의 우울증과 두려움에 대한 행동 평가
수의학과	고포도당에 의한 배아줄기 세포의 세포막 trafficking 기전연구
수의학과	Levodhydroxine을 이용한 개의 발정 주기
수의학과	임신 견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와 모체의 혈류변화
약학부	PTPIB inhibitor의 설계 및 합성
약학부	림프조영술의 이해와 고찰
약학부	한국 자생식물로부터 항암 활성분의 탐색
약학부	D3R의 signaling에 관여하는 특정 DNA와 단백질 확인
약학부	약물유해반응 사례보고에 대한 설문지 개발
미술학과	한국 전통회화의 재료와 특성 - 아교의 성질(성분)과 종류 및 사용 방법 -
미술학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미술 전시 방안 연구 - 사례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과	향가의 작품성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과	이승우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의 양상 분석하기
국어국문학과	스토리텔링의 기법 익히기와 이야기 창작
국어국문학과	이성단 무가의 연행 방식과 그 의의
국어국문학과	현실비판문학
국어국문학과	무등산 자락 마을 지명연구
국어국문학과	광주 지역 연극 활성화 방안(예술 기획 사례)
영어영문학과	소설 '1984'와 영화 '트루먼쇼'에 나타난 '감시'에 의한 인간통제와 전체주의
영어영문학과	Jane Eyre와 Dorian Gray에 나타난 빅토리아니즘과 반 빅토리아니즘의 비교분석
영어영문학과	유토피아 가면을 쓴 디스토피아
영어영문학과	빅토리아조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주제성 회복을 위한 시도와 오늘날의 의미 고찰
독일언어문학과	대항방송이 지니는 영향력
독일언어문학과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와 스티븐 달드리의 영화(더 리더)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과	독일환경교육에서 배우는 초록음차임
독일언어문학과	교육적 관점에서 본 독일 동화(그림 형제의 동화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과	구성주의 이론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론에 대한 연구
독일언어문학과	의사소통시 문화적 차이인식과 극복 방안
독일언어문학과	동 서양의 문화 차이 이해 및 극복 방안
독일언어문학과	영화를 통해 독일문학에 다가가기
독일언어문학과	국내 애니메이션의 현재적 위치와 활성화 방안
불어불문학과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갈등과 한계(한, 일간의 관계 조망을 위한 사례 연구)
불어불문학과	문화중심지 광주의 연극 예술 축제 기획
불어불문학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광주의 이미지
불어불문학과	프랑스를 벤치마케팅하여 친환경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광주
불어불문학과	효과적인 Delphi & Delphi(프랑스어능력시험)학습 방법
중어중문학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과	중국음식을 통한 중국인의 전반적 사고와 문화 탐구

중어중문학과 中國 古典文學史 研究
 일어일문학과 한일양국을 통해서 본 임진왜란의 영향 고찰
 일어일문학과 일본에서 행해진 한국어학 연구(학자 小倉進平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과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
 일어일문학과 『선혈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억압된 성』
 사학과 19세기 감자 기근으로 인한 아일랜드계 미국 이민자들의 상황과 의의
 사학과 한국 현대 사학사 정리
 사학과 해방 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의 결성과 남조선 노동당으로의 변화
 사학과 중국 고대 주나라의 봉건제와 종법제도
 사학과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강진의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 고찰
 철학과 상실의 시대의 비정규직(비판이론을 중심으로)
 철학과 영광지역 인구유출문제와 해결 방안
 철학과 영국 경험론의 인식론 연구
 철학과 낙태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제도적 방안
 철학과 하버마스, '생활세계 식민화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재정립화'
 철학과 페미니즘-주체적 관계 맺음
 철학과 프랑스 5월 혁명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수학과 소비자 이론에 대한 수학적인 엄밀한 분석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수학과 Maple을 이용한 해석함수의 등각성질 연구
 수학과 프랙탈의 타일링에의 응용과 프로그램을 통한 구현
 통계학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 사고 예측 모형 수립
 통계학과 SAS IML을 이용한 실험계획모형의 분석
 통계학과 데이터마이닝 기반 주택가격상승 요인 분석
 통계학과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재학생들의 의식 조사 · 분석
 물리학과 수면내시경시 마취제(Propofol)의 적절량 측정 및 통계적 분석
 물리학과 CDF 실험의 CMX 검출기에서의 Vertex 보정 연구
 화학과 프레넬 회절 이론과 실험
 화학과 코마린을 도입한 거대고리 분자의 합성 및 특성연구
 화학과 카데킨의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과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및 촉매활성 연구
 생물학과 장수풍뎅이 유충으로부터 바이오에탄올생산 균주의 발견
 지구환경과학부(지질환경전공) 갯벌 미생물에 의한 금속 환원 연구
 지구환경과학부(지질환경전공) 자연발생 석면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지구환경과학부(해양환경전공) 바지락의 섭식선호도와 탄소동화효율
 지구환경과학부(해양환경전공)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enier
 지구환경과학부(해양환경전공) 전라남도 연안의 장기간 수온과 해수면 변화비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세소리와 그에 따른 행동패턴에 기인해 작성한 전남대학교 생태지도

생명과학기술학부 유전자 knock out 및 형질전환 mice를 이용한 알라지 질환 개선 방법 고찰
 전기 및 반도체공학 스마트 그린 전력 관찰 시스템
 전기 및 반도체공학 전지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자기 발전으로 주행거리 연장
 자동차시스템공학 정적 미서를 이용한 기포 미립화 특성 연구
 해양토목공학 SSA-3D를 이용한 3차원 사면안정해석
 해양토목공학 P.S.C 박스거더교량의 시공단계 해석
 환경시스템공학 조옴파를 이용한 선저폐수 처리 연구
 환경시스템공학 친환경 천연비누 제조 연구
 환경시스템공학 컴퓨터모델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 평가 연구
 환경시스템공학 강우시 비점오염원의 발생특성 및 영향인자 분석에 관한 연구
 응용수학과 실수와 복소수에서 특성들의 비교
 영어학전공 왜 영어가 한국인에게 어려운가
 중국학전공 올바른 고전 읽기와 고전 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론 연구
 중국학전공 中國 戰國時代の 人性論에 대한 研究
 멀티미디어전공 수중 탐사체 3D 모델링 & openCV를 이용한 영상처리 로봇
 멀티미디어전공 안드로이드 학점 계산기
 멀티미디어전공 게임시나리오의 중요성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여수 총무공 음식 브랜드 개발을 위한 아이덴티티 연구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에 있어 타이포그래피의 영향 및 효과의 유용성 연구 (공모전 및 토포프로젝트 추진)
 일본학전공 광양관광의 호텔 탐방으로 본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탐색
 물류교통학 해양산업발전이 전남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물류교통학 2010 여수세계박람회 교통수요 관리 계획
 물류교통학 중국항과 광양항의 요인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물류교통학 여수 EXPO 행사 중 도시 간선도로 용량증대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전공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
 전자상거래전공 (부제: 3D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과 인력의 교육내용의 선택)
 전자상거래전공 옥션의 충성도 제고 방안
 전자상거래전공 스마트폰 응용서비스의 사례기반 보안 기술
 환경해양학전공 한국 내만에 서식하는 *Eurytemora pacifica* 지역개체군의 유전적 차이
 조선해양공학전공 CFD를 이용한 로터블레이드(Rotor Blade)의 최적 설계연구
 기관시스템공학전공 펌프의 종류와 설계방법에 관한연구
 기관시스템공학전공 수중에서 부력제어에 관한 연구
 해양식품공학전공 울금의 항산화 활성 및 어류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미생물 활성 연구
 해양식품공학전공 녹차 추출물의 첨가에 따른 조피블락의 성장 및 면역력 개선효과
 해양식품공학전공 조피블락의 성장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무회과부산물물의 이용 연구
 수산생명의학과 감염실험 후 사육수에 대한 살균력 실험

08

상담하며 글에 눈을 뜨다!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보고서, 서평, 체험담, 자기소개서... 대학생할 하면서 써야 할 글이 참 많다. 내 것 쓰기도 정신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의 것을 뜯어보고 조언하면서 더 좋은 글쓰기에 눈뜰 수도 있는 법. 잘 이해되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다보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글쓰기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이라면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글쓰기 상담실의 도우미에 도전해보자.

Program 08. Tip

● **모집대상 및 인원** 학부생 21명, 대학원생 7명 ● **지원 자격 - 학부생** 학부 3~4학년 재학생 중 평균 학점 3.5 이상 / '글쓰기' 교과 또는 '논술 중심 전공 교과'에서 A학점 이상 취득자 /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참석 가능자 / 글쓰기 관련 경력 우대(수상 실적 포함) / 글쓰기 상담 도우미 활동 경험자 우대 (단, 최대 2회까지만 활동 가능) ● **지원 자격 - 대학원생**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전공 불문 /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참석 가능자 / 글쓰기 관련 경력 우대(수상 실적 및 연구 실적 포함) / 글쓰기 상담 도우미 활동 경험자 우대 ● **모집 시기 및 활동시기** 매년 6, 12월 모집 / 매년 9~12월, 3~6월 활동 ● **선발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서류 전형 통과자만 해당 ● **참여 혜택** 글쓰기 상담(피드백) 기법 교육 제공, 자기계발활동기록부 활동 내용 기재 / 매달(9월~12월) 활동비 지급 ● **문의** 기초교육원 062-530-0916

Program 08
제대로 맞았어!!

남의 글 읽다보면 좋은 글쓰기 보여요

이지연_국어국문학과 4학년

글쓰기 상담 도우미와의 인연 2009년 기초교육원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 제 1기를 뽑는다는 걸 알았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글쓰기 교과 A학점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조차 못했다. 2학기 때 논술중심전공교과를 수강하고, 결국 2010년 1학기에 합격했다.

도우미는 주로 국문과생?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공이 다양하다.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도 아주 많다. 자신의 전공 계열과 관련된 글쓰기 상담을 할 수 있어서 능률도 높고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가장 먼저 글쓰기 교과목이나 논술중심 전공강의 수강,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 활동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기자 경험이나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도 상담 도우미로 선발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로 어떻게 활동하나?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 활동 장소는 집이다. 활동에 앞서 상담 가능 날짜를 조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요일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 같다.

활동 원칙이 있다면?

‘글을 직접 고쳐주지 말자.’ 조언과 대안만 제시하고 의뢰인들이 직접 글을 고칠 기회를 줘서 그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학부생 도우미는 학생들이 기초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 준 글을 1차 상담하고 우리가 상담한 글을 대학원생 선생님들이 2차 상담해 준다.

글쓰기 상담의 핵심은 이것 의뢰자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돕는 것. 아무리 좋은 약도 입에 쓰면 뱉기 쉽듯이, 아무리 완벽한 상담도 의뢰자에게 비수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100% 완벽한 상담보다는 의뢰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조언하는 것이 좋다.

세가지 TIP 첫째, 글쓰기 전 개요를 먼저 짜자.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글쓰기도 개요를 먼저 짜보면 탄탄한 구성을 가진 글을 쓸 수 있다. 둘째, 시간 여유를 두고 여러 번 글을 반복해서 고치자. 급하게 쓴 글 중에 훌륭한 글은 드물다.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며칠 후 읽어보면 창피했던 경험들 있을 거다. 몇 번씩 읽어보면서 다듬어보자. 셋째, 다른 사람에게 내 글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내 글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만한 곳이 없다면 온라인 글쓰기 상담실을 이용해 볼 것을 강추한다.

상담 도우미가 되기 위해 받은 피드백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
어떤 글이 잘 쓴 글이고, 좋은 글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배웠다. 이런 집중교육을 받는 건 큰 행운이다.
내 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상담횟수가 늘고, 대학원생 선생님들의 2차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09

잘 쓴 보고서 하나, 열 활동 안 부럽다 우수보고서 공모

수업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 열과 성의를 다해 썼는지 곰곰 생각해본다. 남들과 차별되는 아이디어에 글의 골격까지 잘 갖추어졌다는 판단이 선다면 학기가 끝날 때쯤 우수 보고서 공모에 참가해 보자. 보고서 하나로 총장상까지 노릴 수 있다. 공모에 내기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명품 보고서’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

Program 09. Tip

- 모집 대상 학부생 전체
- 모집 기간 매년 4~6월, 10~12월
- 모집 부문 일반 교과 부문 : ‘글쓰기’ 교과 이외에 해당 학기 개설 교과의 보고서(A4 10매 내외) / 글쓰기 교과 부문 : ‘글쓰기’ 교과 수강생의 소론, 서평, 감성문 등(A4 2~3매 내외)
- 시상 8월, 2월중
- 참여 방법 양식에 맞춰 보고서 작성 후 이메일 통해 응모
- 혜택 총장상·우수상 상금,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062-530-2335.

참신 주제 · 신선 제목으로 눈길 끌어라

조주원_경영학부 3학년/ 일반교과 부문 총장상 수상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주제와 제목의 참신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와 닿았고 참고가 되었던 것 같다.

첫째, 다른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참신한 주제 및
흥미로운 제목을 선정하고, 둘째, 논리흐름 상 따분하지 않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쓰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모에는 어떻게 참가했나 학교 게시판에서 공모 포스터를 보았다. 마침 보고서를 학기 중에 작성하게 되었는데, 한번 내보자는 생각으로 참가했다. 일반 교과 부문으로 <눈 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어떤 강의, 어떤 내용의 보고서? '도시문화이해'라는 인류학과 강좌를 들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현상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해서 직접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그래서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 그 중에서도 그들의 여가생활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가 보고서 쓰는 방법 참신한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참신한 주제를 뽑으면 스스로도 흥미가 생겨 보고서 쓰기를 즐길 수 있고, 교수님도 재미있게

보고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 나름(?)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려면? 일단 과제가 주어지면, 생활 속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야 한다. 과연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주어진 시간과 노력으로 완성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오버는 금물.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감정적 어필을 들 수 있는데 '내가 이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고생했으니, 교수님께서도 알아 달라' 식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한계를 느꼈는지 적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좋은 보고서란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 아닐까? 단순히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이나 이론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해내는 것이 좋은 보고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세가지 TIP 첫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와 제목을 선정하라. 둘째, 논리흐름을 잘 갖추어라. 셋째, 과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했다는 것을 보고서로 표현하라.

10

공부 잘 하는 방법 알려준다고요?

학습법 워크숍

대학에서 공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학습전략, 전공공부를 재미있게 소화하는 방법, 마인드맵을 활용한 시간관리 및 노트필기 방법,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작성과 발표 요령, 학습유형에 맞는 나만의 학습 방법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 학습법 워크숍은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광주·여수 캠퍼스에서 각각 4회~8회 실시하며, 4회(8시간)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Program 10. Tip

● **모집 시기** 매년 4월, 10월 중 ● **강좌 기간** 매년 4~5월, 10~11월 중 ● **신청 방법**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l.jnu.ac.kr>) 로그인 → 프로그램 → 학습법 워크숍 → 해당학기 학습법 워크숍 → 캠퍼스 선택 ● **워크숍 내용** 매학기 마다 다름 ● **참여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기재 (4회, 8시간 참여학생)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력 연구개발부 062-530-2332

11


똑소리 나는 보고서 작성

맞춤형 글쓰기 워크숍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주 동안 개별 보고서와 논문 작성 실습 및 피드백을 강화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와 논문 작성을 위한 주제 선정에서부터 자료 찾기, 목차 구성, 효과적인 서술, 인용법 등에 이르기까지 강의와 실습, 토론, 피드백 등을 통해 올바른 보고서 및 논문 작성법을 알려 준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한 분반당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된다.

Program 11. Tip

● **모집대상 및 인원** 전남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한 분반 당 20명 이내로 구성 ● **모집 시기** 4월, 10월 강좌 기간 5월, 11월 ● **강좌 내용 및 운영** 보고서 작성 실습 및 일대일 피드백, 매주 4시간씩 총 2주 8시간 ● **신청 방법**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l.jnu.ac.kr>) 신청하면 선착순 선정 ● **참여 혜택** 4강 참여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인증 ● **문의**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062-530-2335

입학교육
보고서 작성법을
힘써라!


'공부일촌' 8주차 학습보고서

참여 프로그램 **한울학습** T1 한울학습 () T2 새내기 한울학습 ()
공부일촌 S1 공부일촌(교과목) () S2 공부일촌(자유주제) (●) S3 대학원생공부일촌 ()

교과목(주제) 매일경제신문 **공동체 명 MK Study**

지도교수 면담 여부 (●)

면담내용 그동안의 스테디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신문기사스 크럼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인 듯 하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 셴고 다음으로 매경TEST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스테디원들이 풀었던 문제집을 훑어 보 시면서 각각 한 개씩 질문을 던지시며 한 학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저희들과 같은 시기에 학문적 호기심을 가 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행동이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 습니다.

학습목표 신문을 읽음으로써 국내외정세를 파악하고 중요 기사를 요약,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궁 극적으로는 자신의 발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매경테스트 문제를 풀면서 경제 지식을 쌓는다.

학습내용 및 과정 ● 각자 기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2010년에 일어났던 사건 중 자신이 가장 이슈라고 생각한 기사를 발표하였다.

- 매경TEST 문제풀이시간을 가졌다.(개별 담당문제 설명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기사 주제와 간단한 내용

▶ 이소라 '진퇴양난 월가'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신용평가사들이 우세한 편이나 앞으로의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미국 의회가 금융산업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각종 정부나 기업, 은행들은 신용평가 업무를 무조건 3대 신용평가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어 그동안 유지해 온 증권발행기관과 평가사 간 밀월 관계도 종식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금융법안에 대해 금융사들 특히 월가의 로비스트들은 파생상품 분사안을 상원 합의안에서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손익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민희 '美·中 전략경제대화'

주요내용 1. 위안화 절상

- 중국 측의 주동적 위안화 환율제체 개혁 의사표명으로 미국 측에서는 위안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주요내용 2. 천안함사태

- 美 : 북한이 정전협정에 중대한 위반을 한 만큼 대북 제재에 협조를 요청
 - 中 : 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라며 유 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내부에선 논쟁이 격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그 이유로는 동맹국인 북한을 무작정 감싸기도 어려운 국제사회 분위기 때문

▶ 김지수 '원화값 가파른 하락'

주요원인 1. 남유럽발 재정위기

- 캐리트레이드의 요인 상승과 함께 남유럽발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주요원인 2. 천안함사고 관련 북한리스크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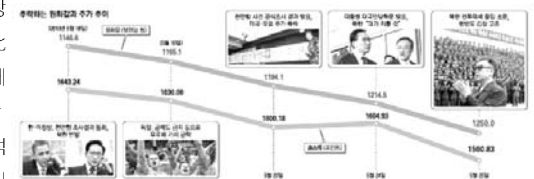
-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로 인해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화 값에 영향을 끼침
 - 남유럽발로 시작된 위기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겹치면서 원화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향후 환율의 움직임은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대다 수이며 한국은 유럽과 달리 경제 기조여건(펀드멘탈)이 우수하고 천안함 사태가 남북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원화값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고 분석하고 있음.

▶ 송다빈 '5·24선언 이후 국내외 정세'

- 주요사안 1. 예상

보다 큰 북리스크 '北 전 투태 세' 한 마디에 주식·외환시장 발칵 대북 이슈는 심리적 으로 민감한 사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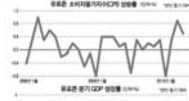


어서 투자자들에게 연쇄적인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남유럽 발 지정 위기로 이미 원화 값이 약세 국면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이 큰 부담

- 주요사안 2. 요동치는 금융시장 場中 원화 값 60원↓ 코스피 72P↓ 투자자 '패닉' 천안함 후폭풍이 당초 예상보다 거세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으로 과거 북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지정학적 위험에 내성을 가진 국내 금융시장도 실제적인 남북 극한 대치 상황은 이겨내지 못하였고 정부가 장막만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값 하락 폭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권해성 '디플레이션 공포 유럽을 침몰시키나'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기초체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은 과거처럼 물가를 잡는 데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산가치 폭락을 가져온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자체의 문제이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미국 경제, 일본의 만성화된 경기침체, 중국의 출구전략 우려등으로 디플레이션 망령을 전 세계로 확산 시킬 수 있다.



● 매경 TEST문제풀이 간단한 내용

- 이소라 : NO. 110 제품수명주기 그래프에 대한 이해
- 김민희 : NO. 108 경상수지와 환율 변화
- 김지수 : NO. 109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글로벌 이슈
- 송다빈 : NO. 107 로렌츠 곡선에 대한 이해
- 권해성 : NO. 111 최수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와 균형조건

평가 및 소감

- 이소라 : 현재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 천안함 사태로 인한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발표,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으로 인해 생각 외로 천안함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다. 그래서 신문에도 요새 계속 이런 기사만 나와서 이번에는 각자 주제를 정해 관련이 많은 기사를 여러 개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사를 정리하니 아는 것이 끊기지 않고 그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현재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현재 월가의 상황과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번 여러 소송 사건으로 인해 금융평가사들의 독점이 사라질 전망을 보이는데 실제로 그리스 등급을 강등해서 오히려 위기를 더 초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김민희 : 미국과 중국이 현재 세계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보아도 마땅하다.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합의내용을 보는것과,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좀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두 나라간 대화에서 이 문제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 이번 스크랩은 현한정 시기에 배웠던 내용을 심화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 김지수 :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출렁거리고 있다. 항상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임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향후 전망은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평가에 앞서 경제편더멘탈 뿐만 아니라 금융편

더멘탈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송다빈 :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과 관련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한참 경기가 좋다가도 천안함사건이 터진후로 그대로 원화값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경제는 많은 요소가 원인이 되어 변동한다는 이론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원들과 진지하게 전쟁이 일어날까? 라는 토론도 해보면서 이 모든 상황은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 보았다. 매경테스트에서는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같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수 있었다
- 권해성 : 유럽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 이후로 신문에서 내내 디플레이션과 어두운 이야기만 나온다. 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민간고용을 창출해내야 한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일촌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보고서와 교수님 면담을 하면서 조원들과 노력했던 지난 학기가 생각났다. 뿌듯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였으면 좋겠다

과제	신문 기사 요약본 준비 + 매경테스트 문제풀이
다음주 계획	기사 발표와 매경테스트 문제풀이

2010년 5월 30일
이피미 및 공부일촌대표 : 김지수
제출자 : 김지수

'한울학습' 8주차 학습보고서

참여 프로그램	한울학습 T1 한울학습 () T2 새내기 한울학습 (●)
	공부일촌 S1 공부일촌(교과목) () S2 공부일촌(자유주제) () S3 대학원생공부일촌 ()
교과목(주제)	한국 경제의 이해 공동체 명 여신과 아가들
지도교수 면담	여부 (●)
면담내용	두 번째 면담이라 그런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시간이 이루어졌다. 우선은 그동안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를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끝날때마다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좋았던 것과 개선해야할 점을 말씀해주셨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매일 확인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학습목표	1. FTA에 대해서 토의하기 2. 공급과 균형점의 의미와 형성과정에 대해 학습하기
학습내용 및 과정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나 칠판필기 수업보다는 개념설명과 토론을 중심으로 다루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끄미언니의 제안으로 야외수업을 하게 되었다. 공부 할 부분은 공급과 균형점에 대해서이다. 공급은 생산자 즉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공급량도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량을 뜻하게 된다. 재화의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들이 5가지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끄미 언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재화, 그리고 다른 재화의 시장가격과 생산요소가격의 변화 그리고 기술수준과 기업의 목표가 그 5가지 요인이다. 그 다음으로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 배웠는데 이는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으로 기존의 가격과 공급량이 기준이 된다. 균형점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은 한 재화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위에서 형성된다. 만약 이 재화의 가격이 P, 이라면 생산자들은 Q, 만큼 공급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초과 공급으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기에 생산자들은 가격을 인하해서 재고를 처분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와 같은 가격하락은 다시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높

은 가격을 지불하고자라도 이 재화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들은 이에 따라서 생산을 늘리게 된다. 균형상태가 붕괴되고 새로운 균형이 성립되는 균형점의 이동은 수요 and/ or 공급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거래량과 가격은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 할 때는 거래량과 가격이 줄어든다. 공급이 증가 할 때는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공급이 감소할 경우 거래량은 줄어들며 가격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경우 첫 번째로 모두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며 가격은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기도 하며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나 거래량은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토론**
- 이끄미언니: 저번시간에 IMF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지?오늘은 FTA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FTA란 무엇일까? 우선 무엇이 약지일까?
 - 정솔: Free Trade Agreement예요.
 - 이끄미언니: 그렇지.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 윤진환: 무역협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요?
 - 김성백: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에요.
 - 이끄미언니: 그렇지.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즉 관세 철폐와 같은 경제통합을 의미해. 그럼 이러한 FTA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
 - 이환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요.
 - 김성백: 또 음.. 서로 간에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관세라던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하지 않으니깐요.
 - 이끄미언니: 그렇지. 상품거래와 교류가 자유롭고 또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
 - 권혜령: 하지만 강대국과 FTA 협정을 맺게 되면 많은 자본을 가진 강대국에게 죄지우지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이끄미언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맺을 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지?
 - 모두: 네.
 - 이끄미언니: 그럼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 김성백: 칠레, 싱가포르, 미국이 있구요. 또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현재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 이끄미언니: 그 밖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도 협상을 했었고 유럽 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과도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체결하는 이유가 뭘까?
 - 이환희: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협약을 맺는 것 같아요.

- 정솔: 그러구요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잖아요 언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을 만 큼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상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것 같아요.
- 윤진환: 맞아요. 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생존과도 같은 거 같아요. FTA를 맺는 자체가요.
- 이끄미언니: 좋은 비유다. 경제적인 생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강대국과의 협약은 좌지우지되기 쉽다는 말을 했었지? 이와 같은 FTA의 단점은 무엇일까?
- 양효영: 지금을 세계화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속내를 따져보면 지역주의 경향이 매우 강한 거 같아요.
- 이끄미언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
- 권혜령: 지역주의가 확산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음. FTA를 맺음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 이끄미언니: 그렇지. 잘 알고 있구나? 음 그럼 휴영이가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래? FTA에 대해 뭘 느꼈어?
- 양효영: FTA는 장점과 단점도 있고 음..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협약을 맺으려고 하면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체결에 있어서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 같아요.
- 정솔: 아 그러구요 언니 FTA는요,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과정에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도요.
- 이끄미언니: 그래,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거지.
- 모두: 네.

평가 및 소감

- 윤진환: 평소와 달리 야의 수업을 해서 즐거웠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 겠습니다.
- 김성백: FTA에 대해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아서 좋았고 경제원론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양효영: 평소와 다르게 야외수업을 했는데 아이들과 이끄미 언니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오늘도 알찬 수업이었던 것 같다
- 권혜령: FTA에 대해 여러 가지 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경제원론 수업도 하면서 시험공부 대비도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 이환희: FTA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와 연관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토론수업이었던 것 같고, 야외수업이라 더 활기찬 마음으

로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다.

- 정솔: 토론형식으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서 FTA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8주차 학습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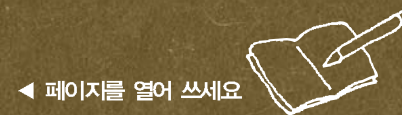
- 변아름: 공식적인 한울학습 만남이 끝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해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란 고민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수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 한울학습을 통해 이끄미가 따르미들에게 알려주는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끄미와 따르미의 상호교류가 활발한 수업을 통해 서로가 win-win하는 한울학습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우리의 공식적인 만남은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매주 모임을 가져 우리들의 한울학습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 양효영: 교수님과 면담을 가졌는데 교수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즐거웠던 시간 인거 같다.
- 이환희: 마지막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울을 통해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뿌듯했고 한울이 끝나도 자주 모일 것이다.
- 윤진환: 교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 어색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마친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 권혜령: 한울이 끝난다는 것이 많이 아쉽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은 것 같아 뿌듯하다.
- 정 솔: 이번 한울 학습을 통해 참 많은 걸 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김성백: 오늘 2차면담을 했는데 저번보단 서로 활발하고 얘기도 자주해서 좋았고 또 교수님이 저희보고 잘하려고 응원도 해주셔서 좋았다.

과제 6.2 지방선거 광주 시장 예비 후보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오기

- 다음주 계획**
1.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학습하기
 2. 6·2 지방선거 광주 시장 예비 후보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2010년 5월 18일
이끄미 및 한울학습대표 : 변아름
제 출 자 : 권혜령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알찬교육
프로그램



나만의 일차년도 교육 드림캘린더

16~17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 / 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해! 학습공동체 '공부일촌·한울학습' 기초교육원 062-530-2332												
독서토론 공동체 '다독다독' 기초교육원 062-530-2335												
신입생-교수 세미나 '이뤘고-교학상장' 기초교육원 062-530-2334												
U-러닝공동체 'U-makers' 기초교육원 062-530-2336												
세계 학습공동체 '누리드리' 기초교육원 062-530-2333												
문제해결능력향상 연구 프로젝트 교육자원과 062-530-1023												
온라인 글쓰기 상담도우미 기초교육원 062-530-0916												
우수 보고서 공모 기초교육원 062-530-2335												
학습법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2												
맞춤형 글쓰기 워크숍 기초교육원 062-530-2335												

“두드리세요.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려요”

“외국어 올림증을 극복해보고 싶다는 열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국제협력본부의 문을 두드리세요. 경쟁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다양하고 큰 혜택에 비해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보다 자기계발을 위해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교내 국외파견 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졸업할 무렵에는 어느덧 글로벌 인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국제화 서포터
국제협력본부 장지영 선생님



국제화
Dream Manual

초등학생으로 연수를 떠나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해외 체험은 대학생들의 큰망이다.
 외국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외국어 실력뿐일까.
 차남된 자기를 발견하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게 진짜 수확은 아닐지.
 외국어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세계인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국제화 프로그램들에
 지금 도전해보자.
 그리고 많은 경험자들이 외국어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자.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글로벌 DNA를 깨워줄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국제협력본부 <http://international.jmu.ac.kr>
 언어교육원 <http://language.jmu.ac.kr>

네이만의 글로벌 DNA를 깨워라!

학기중 파견 프로그램

국제화 과정, 교환학생,
 국외봉사, 국제인턴

방학중 파견 프로그램

세계교육기행,
 제2외국어연수,
 희망해외연수

교내 프로그램

외국어 캠프,
 국제어문학교(1기, 2기)
 국제겨울학교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이끄미-따르미



국제화 드림캘린더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 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제화 과정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합격생 영어캠프 언어교육원 062-530-3641			교육조교 참여 신입생 참여								교육조교 신청 신입생 신청	
희망해외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제2외국어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교환학생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국제여름학교(영어·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파견 6개월 -1년전 선발			영어		일어		
국제겨울학교(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국제인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방학 중 6-8주									
국외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장기 최대 2년
세계교육기행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이끼미-따르미 언어교육원 062-530-3630												
모의토익 (여수) 교학과 061-659-6201												
외국어 Up-grade 프로그램 (여수) 교학과 061-659-6201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01

국제화 지수를 높이자

국제화 과정

대학에 들어온 뒤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학원이나 동아리, 스터디그룹에서 하는 공부에 한계가 느껴진다면? 제자리걸음인 외국어시험 점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를 클릭하라. 수많은 국제화 프로그램 중 학부 초년생을 외국의 우수대학에 파견하는 국제화 과정을 눈여겨보자. 튜터들의 꼼꼼한 지도를 받는 언어 연수와 그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rogram 01. Tip

- **개요** 캐나다,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자매대학에 한 학기 동안 학부 저학년 학생들을 파견하여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한다.
- **대상** 학부 초년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학기당 100명 내외 면접 선발 시험
- **모집 시기** 매년 4~6월(2학기 파견), 10~12월(1학기 파견)
- **파견 시기 및 기간** 매년 3~6월(16주), 9~12월(16주)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신청
- **활동 내용** 자매대학의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 교과목 이수 / 해당 지역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 **참여 학생 혜택** 학점 인정, 파견 소요비용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알면 알수록 혜택 많아지는 국제화 프로그램
자격과 시기 잘 알고 신청하면
꼭 지원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복수 참가

남들보다 지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국외파견 프로그램의 구분 및 종류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본부 지원을 받아 참가 가능 ▶ 2회를 초과하여 본부 주관 국외파견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본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국외파견 사업(CCUSA 등), 세계교육기행, 봉사활동 등은 위 2회 참가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참가자에게 직접 경비지원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상대교에서 학생에게 대응 경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기본 참가 자격

이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교환학생, 인턴, 국제화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파견일 기준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기 이수학기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재학 중 파견이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 후 마지막 학기(또는 졸업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체협'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며, 학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대학원생은 '체협' 프로그램인 세계교육기행, 국외봉사 등에 한하여 참가 가능)
- 대학 프로그램 이외에 학생 주도로 가는 자비유학, 국제인턴의 경우 심사를 거쳐 본부 지원가능

영어실력 확실히 쌓고 대학 강좌도 들어요

김제영_ 기계시스템공학부 3학년

하루 10시간 수업 주말엔 즐거운 여행 지난해 1학기에 필리핀 Cebu Doctor's University에서 연수하고 돌아왔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짝 짜인 스케줄에 맞춰 수업을 받았다. 1대1로 진행되는 회화, 문법, 독해수업, 4명이 함께 듣는 토론수업 이외에 CDU대학의 정규교과목인 Philippine culture, mass media 강의를 수강했다. OPC, TOEC, TOEFL 중 1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special class도 있다. 그래도 주말에는 튜터들과 함께 지역 명소를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짧은 기간 토익점수 올리기에 그만 많은 국제화프로그램 중 국제화 과정이 좋은 이유는 짧은 기간임에도 토익점수를 올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매달 토익시험, level test, 중간 기말고사까지 엄청난 양의 시험을 봤다. 잦은 시험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가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아서 기분이 참 좋았다. 나는 연수가 끝난 뒤 일단 토익점수가 800점대로 올랐고, 회화가 대세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회화 스튜디오에 들어가 말하기 스킬을 닦고 있다. 학부에서 시행하는 Global Project를 통해 서울대, 미국의 Penn University 학생들과 매주 화요일 영어로 화상회의도 하고 있다. 필리핀 친구 한 명을 사귀어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면서 영어 회화의 동반자가 되었다.

잦은 시험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영어공부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학교홈피 체크해보며 좋은 기회 잡길 나는 국제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얻었다. 평소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했고 국제협력본부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놓았기 때문이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뷰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공부했고, 영어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또 최신 전자사전을 사서 단어와 숙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국제화 과정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당장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300만원이라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을 벗어난 그 순간,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하늘을 나는 매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외국경험인 것 같다. 영어공부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 즐겁게 영어공부를 해보길 권한다.



02

미리 느껴보는 대학의 맛!

합격생 영어캠프

합격증 받아 놓은 뒤부터 입학 전까지, 머릿속은 복잡하고 몸은 게을러지기 쉬운 기간이다. 합격생 영어캠프는 아무런 소득 없이 버려지기 쉬운 이 천금 같은 시간 동안 대학생활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공부 페이스를 미리 익히는 캠프다. 원어민, 한국인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집중강좌는 대학공부에 대한 의지와 흥미를 일깨워준다. 또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학점, 외국어, 봉사 등 각 분야 고수 선배들의 알찬 노하우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한발 앞서게 도와줄 것이다.

Program 02. Tip

● **개요** 우리 대학 학생의 소속감을 높이고 대학 입학 초년생의 학습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여 지역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영어집중캠프다. 국외연수 없이도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 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 1기(수시모집 합격자) : 300명, 2기(정시모집 합격자) : 200명 ● **모집 시기** 매년 12월, 1월중 ● **교육 기간** 1기 - 1월중 3주, 총 120시간 / 2기 - 2월중 3주, 총 120시간 ● **선발 방법**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jnu.ac.kr>) 공고 및 지원서 접수 1기 교육지원과에서 선발 (선착순 300명) / 2기 언어교육원에서 선발 (선착순 200명) ● **교육 내용** 영어집중교육 : 90시간(15일×6시간) / 교수, 영화 프로듀서 등 특별강의 / 장소 찾기, 피구, 스피드게임, 신문지 게임 등 영어를 이용한 다양한 실내의 활동 / 재학 중인 우수 선배와의 대화 ● **문의** 언어교육원 062-530-3641

Program 02
제대로 맛보기!

대학생활 8할을 영어캠프에서 배웠다

윤지연 수학과 1학년



내 열정 불태운 첫 스테이지 대학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한다. 4년을 어떻게 보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의욕에 불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입생 jump-up 영어캠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열정을 불태울 첫 번째 스테이지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다. 대학생활은 듣고 싶은 강의도 자기가 정해야 하고, 꿈을 위한 로드맵도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가 강요하지도,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입학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입학 후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영어캠프는 그런 점에서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써야 했던 날들이지만, 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 선생님이 내주신 journal writing 숙제, 외국인 선생님 시간에 친구들과 만든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 캠프가 끝날 때쯤엔 ppt로 개인별 주제발표를 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환경 관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해 나는 일주일 전부터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진 자료를 모아 집에서 큰소리로 발표연습도 해보았다. 힘들긴 했지만 이 경험도 개강 후 강

의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캠프 중간에 했던 캠퍼스 내 건물 찾기 미션도 기억에 남는다. 비 내리는 날 달려 다니느라 땀과 비로 흠뻑 젖었지만 캠퍼스 지리를 익힐 수 있어 즐기고 우리 조가 1등을 해서 상품도 받았다.

선배들의 귀중한 노하우 고스란히 영어캠프에서 영어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영어는 기본이요, 대학생활의 노하우, 인간관계, 자신감, 협동심,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배운다. 특히 교수님·유명 인사분들의 특강과 선배와의 대화 시간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삶에 대한 태도, 독서의 가치 같은 광범위한 것부터 장학금, 학점 관리, 공모전, 해외연수 등 구체적인 것까지, 그분들만의 귀중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해 받는 기분이었다. 또 언어교육원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은 나태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는 자극이 되었다. 매번 뿌듯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영어캠프 이렇게 활용해라 일단 망설이지 말고 캠프에 참가해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 둘째, 캠프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라 대학생활 중엔 타 학과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영어캠프로 쌓은 인맥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셋째, 조교 선생님과 선배들을 귀찮게 해라 내가 묻고 들은 만큼 내 대학생활이 풍성해진다.



또 다른 시작

대학생활의 첫 프로그램인 영어캠프는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어는 기본이요, 대학생활의 노하우,
인간관계, 자신감, 협동심,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배웠다.

03

예비 신입생들 담임 맡아 볼까 합격생 영어캠프 교육조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다는 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 또한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입학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의 영어캠프에서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는 교육조교. 3주 동안의 영어집중교육을 함께 하며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다. 돈 내고도 받기 힘든 기획력·리더십 훈련을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Program 03. Tip

- **개요** 전남대 합격생 영어캠프에서 각 분반의 담임 역할을 수행하며 봉사활동을 할 교육조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영어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책임감이 강한 학생 20명 내외
- **모집 시기** 12월중
- **활동 시기** 1기 - 1월중 3주, 2기 - 2월중 3주
- **활동 내용** 캠프 교과운영 보조 및 학습상담
- **접수 방법** ① 방문: 언어교육원 1호관 종합안내실 / ② 이메일: natalie@chonnam.ac.kr
- **제출 서류** 지원서, 재학증명서,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선발 방법** 서류 전형 - 면접 -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최종합격 발표 - 조교워크숍
- **혜택** 수당 지급 (600,000원 및 점심 제공)
- **문의** 언어교육원 062-530-3641

후배들에게는 사랑을 나에겐 책임감을 선물했다

조미영_ 영어영문학과 2학년

나도 드디어 교육조교 되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합격생 영어캠프가 생겼을 때 합격생으로서 참가했었다. 당시에 분반 담임 역할을 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 나와 겨우 2~3년 차이 나는 선배인데도 진짜 대학생답게 우리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나도 꼭 조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체크했고 드디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예비 신입생들과 사제시간으로 각 분반에는 12~13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정된다. 수능을 마치고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예비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나는 카리스마 있는 조교보다는 언니, 누나같이 친근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 나갔다. 점점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 시간이 친숙해지고 정말 즐거워졌다. 낯설어 꾸뻑거리던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따뜻한 모습이 예뻐고 영어 이외의 것들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마지막 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캠퍼스에서 선·후배로 만났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영어수업·게임 등 하루 9시간 함께 조교는 원어민·한국인 강사가 영어집중수업을 진행할 때 함께 수업을 들으며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한국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적해 주어야 한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꼭 학생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1기 조교는 15명 정도였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피드백 회의를 가졌다. 고민과 힘든 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어 수업 이외의 스케줄과 게임 기획 등이 모두 조교들의 몫이었다. 캠퍼스 투어, 분야별 교수 선배 섭외 등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책임감·내적성숙·성취감 3중 세트 이 활동으로 '책임감'을 얻었다. 나를 믿고 대학에서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 신입생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무겁고 막중했지만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같이 듣다보니 듣기가 많이 향상되고, 영어로만 말해야 하니 회화능력이 늘어 난 것도 당연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누구에게라도 도전을 권하고 싶다. 책임감, 내적성숙, 성취감 3중 세트를 교육조교 활동에서 얻길 바란다.

나를 믿고 대학에서의 첫발을 내딛는
예비 신입생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무겁고 막중했지만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04

너의 도전, 대학이 응원해줄게!

희망해외연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꿈까지 작을 수는 없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걱정 없이 해외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희망해외연수. 학교생활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라. 방학 중에만 파견된다.

Program 04. Tip

- **개요** 가계곤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자매대학(필리핀, 캐나다)에서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학기당 20명 내외
- **모집 시기** 4~6월(여름방학 파견), 10~12월(겨울방학 파견)
- **파견 시기 및 기간** 매년 7~8월, 1~2월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신청
- **활동 내용** 자매대학의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목을 이수 / 해당 지역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 **참여 학생 혜택** 학점 인정, 파견 소요비용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Program 04
제대로 맞았어!

엄청난 지원 농치면 후회해요

김은선_중어중문학과 3학년

회화중심 영어수업 하루 10시간 여름방학 동안 필리핀 세부 CDU (Cebu Doctor's University) ESL에 다녀왔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에는 정해진 수업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1:1 개인수업 4시간, 1:4 그룹수업 2시간이 있고, 우리가 참가했던 Intensive Course에는 따로 CDU안에 들어가서 참가하는 Cello Class도 배정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학교 학생 6명 모두 토익 스테디에 참가했다. 7월 말쯤 Cello Class에서 만난 같은 반 사람들과 함께 말라파스쿠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경북대 학생들과 교수님, 유치원 선생님, 이란인 의사 등 구성원이 다양했다. 비포장도로를 5시간 넘게 달리고 우기라서 비가 쏟아지는 바다에서 호핑을 하며 고생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봉사·외국장학생 경험으로 어필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관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전공인 중국어만 공부하고 영어는 등한시 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영어 압박감을 절실히 느끼던 차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신청했다. 2학년 때부터 참가했던 다양한 봉사활동과 중국 정부 장학생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봉사활동 점수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Zero인 토익 점수와 좋지 않은 학점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은 통과할 수 있었다. 면접 때는 국제협력과를 통해 중국에 다녀온 경험을 어필했던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은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영어, 근거 없는 자신감 생겨 필리핀에 다녀온 후 나는 영어뿐만 아니라 내 삶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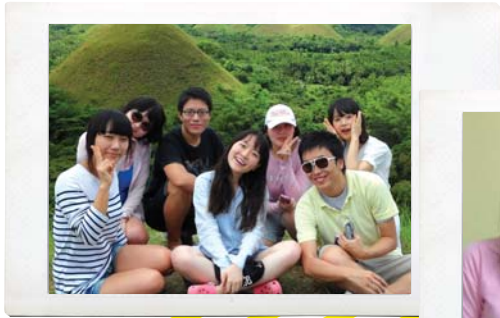
외국어가 영어만 있나요?

제2외국어연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도 있고, 유럽 제1의 언어 독일어,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일본어도 있다.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욕심 많은 재학생이라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떠나는 제2외국어연수를 권한다. 다양한 세계 언어와 사람들을 접하면서 좀더 다각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Program 05. Tip

- 개요 제2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대학 어학원에 파견하여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대상 학부 재학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학기당 100명 내외 면접 선발 시험
- 모집 시기 4~6월(여름방학 파견), 10~12월(겨울방학 파견)
- 파견 기간 매년 7~8월, 1~2월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신청
- 활동 내용 자매대학의 언어연수 과정과 정규교과목 이수 / 해당 지역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 참여 학생 혜택 학점 인정, 파견 소비용 일부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영어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서 공부하러

온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내 가치관도 크게 변했다.

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서 공부하러 온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내 가치관도 크게 변했다. 과거에는 단지 텍스트였을 뿐인 영어가 이제는 살아있는 생활언어로 다가와 공부 재미가 쏠쏠하다. 필리핀에서 친절한 티처들의 도움으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획득한 뒤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예전처럼 무섭지만은 않다. 해외에 대한 인목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 강추해요 이 프로그램만의 특별한 장점은 엄청난 지원금이다. 나처럼 집안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라고 말해주고 싶다.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보았지만 이민금 지원금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도 드물다. 본인 선택에 따라 필리핀이 아니라 캐나다 위니펙 대학으로도 연수를 갈 수 있다. 만약 영어 실력이 토익 800점 이상 수준이라면 꼭 캐나다를 선택해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학교 지원금이 많이 투자되는 프로그램이니 꼭 신청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내 안의 틀 깨고 나온 소중한 4주

정다정_ 영어영문학과 3학년

너무 짧아 아쉬웠던 독일 연수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경험한 4주 동안의 독일어 연수. 하루에 3시간씩 문법과 회화 중심의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활동이나 다른 단체 활동을 했다. Stuttgart의 벤츠 박물관, Heidelberg를 다녀왔고 Hofenheim 볼링장과 클럽에서의 단체 모임에도 참가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아쉬웠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들에게는 좋은 맛보기 경험이 될 것 같다.

교수님 추천으로 연수 도전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어 연수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독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로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 망설였는데, 교수님들이 적극 추천해 주셨다. 나도 이 기회에 유럽 땅을 다시 밟아,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나와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 가장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학생들 역시 어려워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생기는 과도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느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나 역시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틀을 깨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도전하라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두려워하지도, 미루지도,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무 살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이며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시도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인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너무 걱정 없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부터 스스로 문제 해결의 맛을 본다면 앞으로 더 큰 일도 용감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주는 소중한 기회니, 잘 이용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고 거기에서 자극 받아 자기 발전에 힘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06

외국 자매대학 캠퍼스를 맘껏 누비다 교환학생

‘외국대학 캠퍼스에서 그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한다.’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꿈꿔 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전공과 교양 과목의 정규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파견 기간이 그대로 재학 기간으로 인정된다.

Program 06. Tip

- **개요** 우리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는 국외 자매대학에서 등록금 면제를 받고 1학기~2학기 동안 파견되어 학점이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수학 후 우리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또는 최종학기)를 수료해야 한다.
- **대상** ① 외국 자매대학 정규과정에 파견된 적이 없는 자 ② 파견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수업연한 범위 이내에서 수학 후 마지막 학기(또는 최종학기)를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가능 졸업소요 잔여학점(파견일 기준) - 미국, 캐나다,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 37학점 이상 / - 일본, 중국, 독일: 1

년 파견 43학점 이상, 1학기 25학점 이상 ③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④ 재학 중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성적이 있는 자 ● **모집인원** 연 100명 내외 (언어권별, 기관별 차이 있음) ● **선발방법** 교환학생 신청서류 제출 → 단과대학 추천 → 선발시험(외국어구술 및 일반면접) → 학교 추천자 결정 → 자매대학에 추천 → 수확허가(최종합격) ● **모집 시기** 매년 4월, 10월중 (파견 6개월~1년 전에 선발) ● **파견 시기 및 기간** 매년 3월, 9월(지역별 변동 있음) 6개월 ~ 1년 과정으로 파견 ● **신청 방법** 국외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외국어 능력 증서 원본 및 사본을 단과대학에 제출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외국어능력(30%) : 해당언어권 어학능력시험 점수 환산 후 점수 부여 / 외국어 구술 및 일반면접(40%) : 적극성, 태도 및 외국어 구술능력 평가 / 성적(30%) : 환산 후 점수 부여 ● **참여 학생 혜택** 파견시 학교지원금 장학 혜택(2011년 파견 기준) // 첫학기: 중국·동남아 - 150만원 / 일본: 200만원 / 유럽·미주: 250만원 // 두번째 학기- 중국·동남아: 75만원 / 일본: 100만원 / 유럽·미주: 125만원 (파견지역에 따라 미래셋 해외교환장학생 신청 가능 / 파견지역에 따라 해당 국가 장학금 신청 가능 (JASSO 등) / 파견기관에 따라 해당 자매대 장학금 지급 (학교별로 다름) ● **문의** 중국: 062-530-1275 / 일본: 062-530-1267 / 동남아: 062-530-1272 / 미주: 062-530-1270 / 유럽: 062-530-1271

Program 06
제대로 맛보기!

완벽한 미주리주립대 학생으로 보낸 1년

유아미_ 식품공학전공 4학년



주립대생으로 누린 즐거운 대학생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학기 동안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1년 동안 미주리주립대학교의 정식 학생으로서 참 많은 경험을 했다. 첫 학기는 수업 듣고 과제 하고 시험 보느라 금세 지나가 버렸다. 겨울 방학에는 한 달 동안 학교 내 아시아센터에서

열린 한국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 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캠프 선생님들을 도우면서 나 스스로도 영어 실력이 늘었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향상되는 아이들의 실력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즐거웠다. 봄 학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수업들을 들으면서 더 바쁘게 생활했다. 수업 이외에도 주말에 공짜영화를 상영해 주거나 교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Women Center 프로그램 중 language partner는 일대일로 친구를 소개시켜줘 영어 연습도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회화·토플 준비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정보를 얻었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분께 조언도 듣고 미리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언어교육원을 다니며 회화와 토플공부를 했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미리 외국 경험을 해보기 위해 국외봉사활동도 다녀왔다. 교환학생이 매력적인 이유는 학년,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연

이번 계절학기, 미주리대 교수님 강의 어때?

국제여름학교

2009년부터 양방향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국제여름학교'는 학교 안에서 세계 캠퍼스를 실현한다. 매년 6월 중순부터 4주 동안,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적 수준의 전공강의를 체험할 수 있다. 2010년 여름에는 미국 미주리대학, 캐나다 워니페그대학, 대만 성공대학 등의 교수 10명과 국내 유명교수 3명을 초빙해 13개 과목을 개설했다. 미국 텔러웨어 주립대학 4명, 필리핀 딜리만대학 4명, 중국 해양대학 5명 등 14명의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도 참여해 함께 강의를 들었다. 어학실력 향상은 물론 국적 다른 학생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뤄지는 알찬 강의이다.

Program 07.Tip

- **개요** 하계계절학기 기간 동안 내국인 학생과 해외 자매대학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다. 교내 및 국내 교수와 더불어 해외 자매대학 외국인 교수가 양질의 강의를 영어로 전달하여 영어강좌 기반을 조성하고 캠퍼스 국제화를 도모한다.
- **대상** 재학생 전체(전공불문)
- **모집 시기** 매년 5월 중공고(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시기와 동일)
- **운영 기간** 매년 6월 중순 ~ 7월 중순(하계계절학기 시행 시기와 동일)
- **신청 방법** 하계계절학기 수업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참여 학생 혜택** 미주리대 학 지원자 중 성적우수 이수자(A 이상)를 대상으로 국제여름학교 수강료 일부 면제 예정 (2011년 기준)
- **문의** :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수나 유학을 위해 휴학하는 등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언어연수생이 아니라 정식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이나 그 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어울리면서 그 나라 문화를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다.

두려움 극복하고 자신감 키워줘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게 아쉽다. 무슨 일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더 많은 친구들도 만들었다면 1년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이 더욱 보람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나는 새로운 일에 부딪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약간 수줍음이 많았던 예전에 비하면 자신감도 커졌다. 교환학생은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연수나 유학과는 확실히 다르다. 직접 그 학교 학생이 되어 그들과 똑같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활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나는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수줍음이 많았던 예전에 비하면 자신감도 커졌다.직접 그 학교 학생이 되어 그들과 똑같은대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은 곳으로부터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Keep challenging!

이진아_ 식물생명공학부 4학년

미국 스타일 토론수업 힘들지만 보람 2010년 여름 계절학기 동안 Eric Castle 교수님의 일반식물학(Botany 1) 강의를 들었다. 일반식물학은 주로 식물생명공학부 학생들, 그 외 식물과 영어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에릭 교수님은 기존 강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 스타일의 토론식 수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교수님의 열정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모두 최선을 다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수업은 강의실에서 이론 한 시간, 바로 아래층의 현미경실에서 실험 두 시간을 진행했다. 가끔씩 학교를 돌며 학교에 있는 식물들의 영어이름과 특징들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한마디라도 더' 미드 보여 회화 실력 닦아 '국제여름학교는 학과 조교 선생님 이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외국 대학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친해질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외국에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미국드라마 속의 유용한 회화 표현을 외워가기도 했다. 국제여름학교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말이다. 일반식물학은 이론뿐 아니라 실습이 많기 때문에 실습 재료 등을 같이 준비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다. 원래 이 과목을 담당했던 학과 교수님과도 친해져서 더 뜻 깊고 얻는 것도 많았다.

항상 수업 시작 30분 전에는 꼭 가서 강의실 준비와 실습 세팅을 했다. 외국인 교수님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미국드라마 속의 유용한 회화 표현을 외워가기도 했다. 이 과목 담당 학과 교수님께서 에릭 교수님과 나를 이끌고 함께 산에 가서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식물들을 보여주고 채집하기도 했던 것은 참 특별한 체험이었다.

영어자신감 다지고 한국 알린 좋은 경험 에릭 교수님의 부인인 하이드가 한국에 와서 함께 템플 스테이를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소 동양의 절 문화에 관심이 많던 에릭 교수님 부부의 함께 화순의 쌍봉사를 찾아갔다. 담당 과목 교수님께서 직접 절 탐방을 시켜 주셨고 나는 하이드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했다. 580배를 하고 점음식도 먹고 전통차도 마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줬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

국제여름학교에 참여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았고 또한 스스로 책임감이 강해진 것을 느낀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도 사라졌고 내 영어 실력이 모자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란다.



08

이번 학기엔 외국 기업체에서 일해 볼까?

국제인턴

국내기업만 인턴을 뽑는 게 아니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외국 정부기관, 관공서, 연구소, 기업체, NGO, 대형 유통점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6주~1년 동안 유급 또는 무급으로 현지 사람들과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의 직무 환경을 익히고 직무 경험을 쌓는다. 본부주관인턴(미주리대 학, 워싱턴센터, 텔라웨어주립대학)과 개별인턴(외국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등)으로 나뉜다.

Program 08. Tip

● **개요** 세계 각국의 인턴 기관(공공기관, 회사, 시민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대상**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국외의 대학, 기관, 단체, 회사에서 6~24주의 인턴 근무 허가를 받은 후 우리대학에 사전 신고하고 해외 인턴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 실무과정을 마친 후 인증서 제출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매 학기 20~30명 내외 / 지원자의 인턴계획서, 어학, 학교 성적, 면접, 외부 기관 인터뷰를 종합하여 선발 ● **모집 시기** 본부주관인턴 : 1·2학기, 하계·동계학기 시작 2~3달 전 / 개별인턴 : 1·2학기, 하계·동계학기 시작 1달 전 ● **파견 기간** 하계·동계학기 : 방학 중 6~8주 / 1·2학기 : 2~7월, 9~1월 중 15주 이상 ● **신청 방법** ① 본부주관인턴 :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 → 학교 선발 전형 → 외부 기관 인터뷰 → 파견(지원금 지급) → 귀국보고, 수료증 제출 ② 개별인턴 : 개별 인턴 업체 구직 → 계약 및 비자 확정 후 온라인 접수와 서류 제출 → 서류전형 → 파견 → 귀국보고, 수료증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참여 학생 혜택** 6주 이상의 인턴 수행으로 학점(2~15학점) 인정(등록 후 수강신청 시) / 급여 지급 여부와 지역에 따라 100만~400만원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Program 08
제대로 맞았어!

20대, 익숙함 벗어난 새로운 도전

박찬웅_경제학부 4학년

미국인처럼 일하고 생각한 16주 16주 동안 국제인턴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나는 미국 달라스에 위치한 DFW International Community Alliance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팀원들과 함께 장부정리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비롯하여 'African Film Festival' 같은 크고 작은 기업 내의 행사에 Staff로 참여하여 행사진행을 도왔다.

개별인턴은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달리 시간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일하던 곳에서는 주 단위로 할당된 시간을 스스로 조정해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나 내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제협력본부 일짜 정보 잘 활용 전남대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해외 인턴십이 있다는 것을 친동생을 통해 처음 들었다. 이후 3학년 때부터 해외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의 인턴 관련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꾸준한 관심을 쏟았다. 우선 국제협력본부의 많은 정보 교환을 했다. 내가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다. 개별인턴을 하기 위한 정보는 UTD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얻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대 학우들을 통해 준비했다.

각 국 친구들과 나는 글로벌 우정 인턴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브라질, 중국, 터키 친구들과 함께 달라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문화체험을 한 것이 가장 기

09

가슴 뜨거운 세계인이 돼보자 국외봉사



역에 남는다.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 특이한 음식이나 다양한 공연들을 함께 즐겼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보니 함께 인턴생활을 했던 외국인 친구들과 연락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편해서 미리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험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나중에 30대, 40대가 되어 20대를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나의 20대를 채웠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국제인턴 이전에는 일찍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은 내 삶의 안목을 넓히고 더 큰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분명 외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참고 견딜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기 바란다.

KOICA,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세계재난구호회, 한국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등 국내외 기관의 해외 봉사활동 대원이 되어본다.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건축, 문화 교류, 언어 및 기술교육, 의료봉사,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내 가슴 속에 흐르는 뜨거운 인류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Program 09. Tip

- **개요** 우리대학 학생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1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으로서 대학 또는 주관단체의 전형에 통과한 재학생(각 단체별 모집 기준 상이)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매회 10명 내외 추천, 지원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
- **모집 시기** ① 장기 - 매년 2~3회 모집 ② 단기 - 방학 2~3달 전 모집(각 단체별 상이)
- **운영 기간** ① 단기 - 방학 중 2~3주 ② 장기 - 최대 2년
- **신청 방법** 본교 홈페이지 모집공고 → 지원서 작성 제출 → 대학 추천자 선발 → 해당 단체 자체 전형 → 최종 합격자 결정 → 파견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 국내 봉사시간, 어학 성적, 국외 봉사 경험, 학업 외 활동의 우수성, 파견지역 별 우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천 순위 결정
- **참여 학생 혜택** 참여 학생에게 각 단체별 학교 부담금(총 비용의 50% 내외) 지원 / 수강신청 시 국외봉사 과목 학점(1~9학점) 인정 가능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83

사소한 재능이 그들에겐 큰 도움 돼요

김지은_ 간호학과 3학년

한국대표 대학생 30명의 열정 여름방학에 약 보름 동안 태국 방콕의 Watanothaipayap School, 람퐁의 Chalemprakiet 48 Pansa School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30명이 한국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정 가득한 일정을 보냈다. 첫 이틀 동안은 Watpradoo School에서 놀이방을 꾸렸다. 실내, 복도, 청소, 페인트 팀으로 나누어 땀 흘려 일한 결과 밝고 예쁜 공간이 탄생했다. 람퐁 Chalemprakiet 48 Pansa School에서는 약 10일간 가족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학교수업과 미니올림픽을 운영했다. 리본공예, 한국어, 요리, 모자이크, IT, 심폐소생술 등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맞는 Class를 진행했다. 한류 덕분인지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잘 따라주었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한국 음악이나 가수를 공통 주제로 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함께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태국에서 즐겨먹는 간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의 순수함에 동화되면서 팀원들과도 끈끈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년 전부터 국내 봉사경력 쌓아 국외봉사에 대해서는 몇 년 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알았다. 선발 기준을 확인하니 국내봉사경력, 해외봉사경력, 봉사 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등이 필요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국내에서 여러 봉사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페이스페인팅도 배우고 풍선아트 자격증도 취득했다. 전공과 관련된 응급구조 자격증 덕분에 이번 봉사에서 심폐소생술 Class를 운영할 수 있었다. 방학 동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두었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무척 기뻐다. 국외봉사는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를 키울 수 있어 참 매력적이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덤으로 얻는 수확이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 갈 힘 언어 우리가 갔던 학교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없었다. 정에 목말라 있고 쉽게 상처 받는다고 들어서 일부러 약한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떠나오기 전날 밤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쓴 편지와 자기들이 아끼는 물건을 전해주었다. 왠지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잘 몰랐고, 그 나라 언어나 문화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미디어에 나오는 태국의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인으로서의 내 위치에 대한 자각도 생겼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기구도 없는 교실에서 하루 9개 Class의 선생님으로 설 수 있게 해준 힘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었다. 3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밤새 토론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 격려하며 헤쳐 나갔던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든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국외봉사는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를 키울 수 있어 참 매력적이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뒤으로 얻는 수확이다.

10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해 볼까? 세계교육기행

해외에 가고 싶은데 긴 기간은 부담스럽고, 정해진 매뉴얼도 싫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교육기행에 도전해보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체험학습, 국외봉사, 국제교류활동 등 계획을 짜서 제출하면 팀을 선별해서 지원해준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인재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어보자.

Program 10. Tip

- **개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팀 별로 주제 및 탐방 기관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탐방 일정을 수행한다.
- **대상** 전남대학교 학부, 대학원 재학생(휴학, 교류학생 제외) 최대 1회 참여 가능
- **모집 인원** 매 회별 200명
- **선발 방법** 탐방 계획서를 통한 탐방 일정의 체계화 수준, 교육적 효과, 팀원의 어학 능력,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모집 시기** 하계방학 중 파견 3월 말~4월 초 / 동계방학 중 파견 : 9월 말~10월 초
- **운영 기간**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5일 이상 자율 일정
- **신청 방법** 팀 구성 후 온라인 지원, 증빙서류 제출
- **국외봉사 분야** 빈곤 아동 교육, 주택 및 학교 건설, 환경 캠페인, 의료 봉사 참여
- **국제교류 분야** 자매 대학 및 연구소, 국제기구,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학술, 문화 교류
- **학술연구 분야** 학회 및 워크숍 참석,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 **참여 학생 혜택** 지역별로 50만 ~ 9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최우수팀에 차기 세계교육기행 우선 선발권 제공 / 대학총보상, 봉사상, 학술상, 영상상 등 4개 분야 우수팀 선정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다시 보다

임양순_ 신소재공 학부 3학년

철저한 준비로 완성도 높은 탐방계획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14박15일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세계교육기행을 다녀왔다. 삼성전자, 대중유통회사, 우림건설, 신한은행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돌아보고, 우리학교 동문인 김병학 시인도 만났다.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의 집성촌인 '우슈투베'를 탐방하고, 고려인 협회 청년부와 '한류열풍과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과 학술교류를 갖기도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세계교육기행 공고를 본 뒤 우리는 팀 선정의 평가 척도가 되는 탐방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다. 탐방 배경과 분명한 목적의식이 담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팀원들이 계속해서 피드백 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체계적 활동을 보여주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통역학 생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심오히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한국현대사 '빛'과 '그림자' 함께 보여 일정 중에 들른 '우슈투베'라는 고려인 집성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3·4세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한국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 우리 민족의 아픈 현대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보며 참 자랑스러웠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남는다. 기본적인 카자흐어나 러시아어를 배우고 갔으면 좀 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세계교육기행 이후 큰 세상을 보았고,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꿈을 가지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목표도 생겼다.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렇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이나 TV에서나 보았던 카자흐스탄을 직접 가보았다는 것만도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감사한다.

목적의식 분명한 여행의 교훈 느껴보길 돌아켜보면 이전에는 한국, 그리고 그 인의 광주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갇혀 우울 안 개구리처럼 살아온 것 같다. 하지만 세계교육기행 이후 큰 세상을 보았고, 좀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꿈을 가지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목표도 생겼다.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리 학교에는 자기를 계발하고 개인이나 팀의 역량을 발산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세계교육기행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잡아 보기 바란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한 여행이 주는 교훈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1

한국적응 도우며 '국제 우정' 쌓자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내가 만약 낯선 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할 때 언어와 생활을 도와주는 현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에 적용해 만든 프로그램. 신·편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1대 1로 연결하여 학업과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국제화 마인드도 높이고 국제적 우정을 쌓는 기회로 활용해 보기를.

Program 11. Tip

● **개요** 외국인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같은 학과 한국인 학생과 1대1로 매칭하여, 한 학기 동안 유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대상** 우리대학에 신·편입학 하는 학부 외국인과 동일학과 학부생 ●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 신·편입학하는 학부 외국인의 수에 따라 변동 ● **모집 시기** 1학기 - 1월 말, 2학기 - 7월 말 ● **운영 기간** 한 학기(매칭일~종강일) ● **신청 방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jnu.ac.kr>) 로그인 → 인턴/봉사기타 →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 지원서 작성 ● **활동 내용** 수강신청 및 학업시간 계획서 작성, 수강과목별 과제에 따른 개별 학습, 학과 모임 및 행사 참여, 지도교수와의 미팅, 리포트 작성 및 시험공부,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시설 100% 활용하기, 광주박물관·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영화 관람 등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매월 말 활동보고서, 내국인 참가자 참여 태도, 외국인 참가자 학점, 국제협력관련 대학행사 참여, 학기 말까지 제출하는 체험활동 수기 ● **참여 학생 혜택** 1인당 월 30,000원 활동비 지급 (4개월 간)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봉사활동 20시간 인정 (중도 포기 학생 제외) / 우수 활동자 포상금 지급 및 해외 교환학생 참가기회 우선 제공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Program 11
제대로 맞받기!

교환일기로 서로의 마음 읽었어요

박시영_중어중문학과 3학년

내 단짝, 왕흔 지난 1학기 동안 중국인 왕흔 언니와 '단짝' 처럼 붙어 지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처음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를 알게 된 뒤 마음 맞는 중국인 친구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왕흔 언니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메일을 주고받았다. 첫 만남 후부터 교환일기를 쓰면서 친해졌다. 나는 중국어로, 언니는 한국어로 쓴 뒤 서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면서 작문 실력도 높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학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일촌도 함께 했다. 언니가 듣기 부분을 직접 읽어주고 틀린 부분은 바로잡아 주면서 정말 즐겁게 공부했다. 시험 기간에는 함께 듣는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나의 성장 느껴 언니와 만나는 시간은 늘 유쾌하고 알찼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취미가 같다는 걸 알고 매화가 피기 시작한 캠퍼스를 누비기도 했다. 부모님과 동생, 왕흔 언니와 함께 순천 낙안읍성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버가 한국전통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고, 외국인이라고는 학교 원어인 선생님 밖에 만나본 적 없는 동생도 언니를 잘 따랐다. 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배려심을 발견했고, 내가 사는 광주, 전남대학교,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최우수상을 받아 내년 상하이 사범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으니 언니를 통해 얻은 것이 정말 많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당장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를 선택하기 바란다.



왕흔 박시영

참 고마운 시영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어 싶어서 올해 3월 중어중문학과로 편입했다. 전남대에 와서 시영이를 만나 정말 기쁘다. 외국인 등록증부터 통장, 신용카드, 핸드폰 개통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었고 함께 참 많은 것을 했다. 가족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스승의 날에 교수님도 찾아보았다. 전자상가, 서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5.18기념관에서 아픈 역사도 알게 되었다. 특히 교환일기를 쓰면서 한국어 작문실력도 늘고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르바이트가 힘들거나 집이 그렇다고 쓰면 시영이는 나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었다. 늘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시영이가 참 고맙고 좋다.

즐거운 한국생활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얼마 전 교환학생 면접을 보러가는 시영이를 위해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내가 시영이의 중국어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다. 시영이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지금은 학과의 다른 친구들과도 교환일기를 쓰고 있다. 나도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시영이가 중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싶다.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된 건 행운 같다.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는 낯선 한국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준 참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Dream Manual 2011

12

한국홍보대사가 돼보자 이끄미-따르미

한국어를 배우러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안내, 지도하면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보고 한국과 전남대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호의와 기대를 품고 온 따르미와 국제적인 우정을 나눠 보자.

Program 12. Tip

- **개요** 한국어 언어연수생(따르미)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주는 봉사 활동자(이끄미)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모집 시기** 3,6,9,12월중
- **활동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약 10주간
- **신청 방법**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language.jnu.ac.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학기 시간표 1부, 재학증명서 1부를 언어교육원 1호관 한국어실 304호로 제출
- **선발 방법** 서류심사(지원 동기 및 이끄미 활동 계획서 내용), 선발 시 고학년,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제출자 우대
- **활동 절차** 지원서 제출 - 선발결과 발표(언어교육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교육 및 연결식 - 매주 월요일 활동일지 제출
- **활동 내용** 1주일에 1~2회 이상(전체 15회 이상, 20~40시간) 만나 한국어 학습 / 한국 문화 소개 및 적응 돕기 / 따르미와 함께 미션 해결(총 4회 중 2회 이상 활동 인정) / 이끄미 클럽 통해 상호 문화 소통 노력과 활동 결과 일지 제출
- **혜택** 전남대학교 포털 봉사활동 등재, 봉사활동증명서 발급(15회 이상 만남, 미션 2회 이상 수행, 최종 평가 기준 통과자)
- **문의** 언어교육원 한국어실 062-530-3630

도움줄 수 있어 즐거워

이꼬미, 최신비_ 응용화학공학부 3학년

내 친구 셀린 작년에 친구가 이꼬미 활동을 해보고 권해줬다.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고가 뜨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신청했고 프랑스인 셀린의 이꼬미가 됐다. 셀린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의를 듣는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2~3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다.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셀린이 배운 내용을 되짚어 주거나 설명해준다. 단어 공부도 같이 하고 주로 대화연습을 한다. 셀린은 언어학을 전공해서인지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조금씩 한다. 짧은 기간인데도 한국어가 상당히 늘었고, 음식에도 잘 적응했다. 셀린이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함께 먹으러 가기도 했다.

서로에게 배우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이야기하다보니 나도 저절로 영어와 한국어 공부가 된다. 평상시에 쓸 기회가 없던 영어를 좀더 유창하게, 한국어는 좀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 고민하게 됐다. 셀린이 꼭 알고 싶었던 거라면서 좋아할 때면 참 뿌듯하다. 프로그램 미션이 한 번씩 주어지는데, 오늘은 셀린과 함께 읽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골랐다. 앞으로는 셀린이 관심 있어 하는 사찰이나 민속용



품 판매점 등 한국 전통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곳에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나에게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셀린도 프랑스에 돌아간 뒤에 전남대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따르미, Celine Savin_ 언어교육원 연수생

참 어려운 한국어 한국에 온 지 5주 됐다.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많아 어렵기만 하다. 나는 프랑스의 온천지인 비시(VICHY)에 있는 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 중국,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대학생이나 학위를 위해 온 대졸자들을 가르치는데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많이 어려워했다. 그래서 문장구조나 단어 면에서 프랑스어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학생들을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단기 어학코스를 찾던 중에 전남대 언어교육원의 10주 과정을 찾아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기숙사에 머물면서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고마워, 신비 큰 도시이지만 번잡스럽지 않고 음식도 맛있는 광주가 마음에 든다. 전남대는 푸른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한국어가 많이 서툰 나를 위해 학교에서 이꼬미 신비의 불어불문학과과의 프랑스인 교수를 연결해 주었다. 그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신비와의 만남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한국어 수업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신비와 만나면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설명해주고 몰랐던 표현도 배울 수 있어 참 좋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두고 싶어 학내 풍경을 찍어 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13

교내에서 일본을 체험한다

국제여름학교 2기 및 국제겨울학교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일본의 자매대 학생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남대를 방문한다. 방문한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익힐 수 있는 효율적인 단기 집중 연수 프로그램이 모든 재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일본 현지 연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학습 효과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일본 학생들에게 알리며, 국제 인맥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rogram 13. Tip

● **모집 대상 및 인원**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관심있는 본교 재학생 ● **모집 시기** 6~7월(여름방학 참가) 11~12월(겨울방학 참가) ● **활동 기간** 매년 2월~3월 및 8월 중 3~4주 ● **제출 서류** 지원서, 일본어학 성적(해당자만) ● **활동내용** 오전-일본어 집중 수업, 오후-일본 학생들과 한국 문화 체험 ● **활동 혜택** 일부 수업료, 문화체험, 여행경비 지원 ● **문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14

토익 성적 분기별 진단

모의토익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1~3학년 전체와 4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모의토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다.

Program 14. Tip

● **대상** 여수캠퍼스 1~3학년 전원, 4학년 희망자 ● **모집 시기 및 응시 시기** 3~4월, 9~10월 ● **신청 방법** ① 1~3학년 : 학과 조교와 시간표 조정 ②4학년 : 본부 4층 교학과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 **참여 혜택** 도전점수 부여(3점), 외국어 Up-grade프로그램 우선수강, 여수캠퍼스 학업능력향상지원금 신청시 가점 부여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과 061-659-6201

15

수준별이니까 효과 만점!

외국어 Up-grade 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7주과정 영어회화반(40명) 4회, 7주과정 외국어 강좌반(150명)
4회를 운영한다.

Program 15. Tip

● 대상 여수캠퍼스 학부생 200명(1회당) ● 모집 시기 및 수강 기간 4~12월 ● 신청 방법 학과 조교 또는 교학과 방문 ● 수업 방법 언어교육원 영어 회화 및 외국어, 월~금요일 매일 1시간 ● 필수 이수사항 수업의 80% 이상 출석, 수강 중 공인영어시험 1회 응시 ● 참여 혜택 80% 이상 수강완료시 수강료 전액 지원 / 공인영어성적 제출시 도전점수 부여(5점) / 여수캠퍼스 학업능력향상지원금 신청시 가점 부여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과 061-669-6201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국제화
프로그램

◀ 페이지를 열어 쓰세요



나만의 국제화 드림캘린더

72~73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제화 과정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합격생 영어캠프 언어교육원 062-530-3641												
희망해외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제2외국어연수 국제협력본부 062-530-1265												
교환학생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국제여름학교 (영어·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0												
국제겨울학교 (일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7												
국제인턴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국외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세계교육기행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외국인 초년생 길잡이 국제협력본부 062-530-1274												
이꼬미-따르미 언어교육원 062-530-3630												
모의토익 (여수) 교학과 061-659-6201												
외국어 Up-grade 프로그램 (여수) 교학과 061-659-6201												

“진짜 지성인다운 내 모습을 원한다면”

“대학 문을 들어오자마자 취업문을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대학생이 갖는 순수
와 열정의 가치는 아직 유효합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단단하게
다지는 경험을 쌓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죠.

저도 학생들과 함께 국토대장정을 다녀오면서 그 젊음의 열기에 전염되기도 했습
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학생지원과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성
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통섭인재
Dream Manual

대학입학과 함께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시대지만

20대는 분명히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대이다.

이때 아끼면 하기 힘든 고민과

다양한 경험에 즐겁게 부딪쳐 보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나

지역을 고민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이해하고 경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동성인재의 소양을 갖추어보자.

오지르면 너는
대능수생호수,
☆ 모든 것과
소통하라!



동성인재 드림캘린더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챙기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활동기간 ■ 모집기간 ■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구, 돈사람 전남대생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072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104												
국토대장정 학생지원과 062-530-1074												
지리산 종주 학생지원과 062-530-1074												
남도문화유산기행 학생지원과 062-530-1074												
전공멘토링(여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학생교류 학생지원과 062-530-1104 / 학사관리과 062-530-1063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01

이런 것도 배워요?

올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구, 된사람 전남대생 프로그램)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원 절약하기, 바른말 쓰기, 상대방 의견 존중하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야 할 법한 공동체 의식, 매너, 배려를 배우는 수업이 있다. 입시 공부에만 쫓겨서, 혹은 ‘함께’ 보다는 ‘혼자’가 익숙해서 사소히 넘겼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시간이다.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인간미 넘치면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가진 이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다듬는 소중한 체험과 실천을 경험해보자.

Program 01. Tip

- 모집대상 및 인원 학부생 전체 중 각 분반별 60명(1개 이상 영역 참여 가능)
- 모집시기 매년 8월중
- 활동기간 매년 9월 ~ 11월중
-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e-mail로 신청
- 프로그램 운영 방법 소그룹별 체험 중심, 문제현장 개선 활동 중심의 능동적 참여 유도 / 생활속 과제 제시 / UCC 제작 및 수상
- 프로그램 내용 영역 I (공공질서 의식) : 캠퍼스 내 규범과 규칙, 청소, 에너지 절약 등 / 영역 II(매너) : 언어활동 생활, 일상 매너, 글로벌 에티켓 등 / 영역 III(배려와 신뢰) : 입장 바꿔보기, 더불어 함께 하기, 약속과 신뢰 등
- 활동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학생지원처 주관 프로그램 우선 선발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2.

Program 01 제대로 맞히기!

“친구가 소개해줘서 같이 왔는데,
프로그램이 유익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현경_전자컴퓨터공학부 3학년

“알고 있는 건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
액션 의지를 만들어 줬어요.”
이혜민_사회학과 3학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생각과 실천은 한 세트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진호_전자컴퓨터공학부 2학년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져요.
무엇이든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혜원_응용생물공학부 1학년

“된사람이요?
음,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
안효선_생활환경복지학과 2학년



왼쪽부터 송현경, 이혜민, 고진호, 이혜원, 안효선

02

새로운 나를 만나는 2박 3일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프로그램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내서 목표와 비전,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보자. 진정한 리더라면 자기 자신을 리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잠재적 능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코칭 할 수 있어야 한다. 코칭 리더십 집중캠프를 통해 지혜로운 리더가 되자!

Program 02. Tip

● **개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고 그 잠재적 능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코칭하는 능력 개발 ● **모집인원 및 자격** 자기계발코칭 리더십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하계 및 동계) 1회당 40명 ● **모집 및 접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운영기간** 6~7월 12~1월 ● **신청방법** 전남대 홈페이지 공고 후 개인별 이메일 접수 ● **주요내용** jobEQ검사 및 결과 해석, 음악과 댄스 명상을 통한 감성 수련, 성공신념 갖기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컨설팅과 스피치 코칭 등 ● **참여학생 혜택** 참가비용 없음 / 자기개발활동기록부 등재 / 취업 추천서 반영 / 각종 장학생 및 해외봉사단 선발시 가점 부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104

Program 02
제대로 맞아요!!

제 10차 리더십캠프 1조 조원들의 '내 마음에 새긴 것들'

"대학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 오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일부터 시작해야죠.

박효정_조경학과

"환경을 만들면 행동과 실력도 따라온다."

말 한마디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나 자신에게 지부심 가지기! 보물지도를 그리면서 내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교준_컴퓨터공학과

"중요한 것은 자신감 나를 믿고 노력하자"

리더십에 대해서만 배운 게 아니라 협동심, 배려심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대학생에서 더 많고 다양한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밝은 미래에 한발 다가선 느낌 긍정적인 착각에 빠져보아야겠어요.

차윤경_조경학과



“능력은 환경을 지배한다. 도전하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면 두려움이 없다! 누구든 레드오션을 거쳐야 블루 오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요. **강주성** 경영학부

“독서 늘 책을 읽고 교양인이 되자!”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어요. 폭넓은 독서를 통해 지성인 으로서의 교양을 쌓아야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인생설계를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민지** 응용생물공학부

“불같은 연애! 이유 있는 방향! 무일푼 여행!”

스무 살이 가기 전에 꼭 내 삶에 적용해보아야겠어요. 나의 비전이 항상 막연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늘 긍정적 마인드로 대학생활을 해야겠어요. **박인화** 산림자원학부

“리더는 나서는 사람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

사회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이해와 배려심을 좀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아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김수연** 응용생물공학부

03

해남에서 임진각까지, 패기와 열정의 18박 19일

국토대장정

한반도 땅끝 해남 토말비에서 북녘땅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까지 56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이다. 피약별과 소나기를 맞으며, 긴 길을 걷는 동안 동료애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 대학생으로서 조국의 의미와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10년에도 제4회 국토대장정 ‘독심’ 팀이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560km를 완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귀한 경험을 쌓았다.

Program 03. Tip

- **개요**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종단하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극기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통찰력을 기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감성에 기초한 인성교육과 배려·공동체 의식·창의성·개방성을 키워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 시기** 매년 6월 중 홈페이지 통해 공고
- **모집 인원** 40명 (신청인이 40명 이상일 경우 추첨)
- **운영 기간** 매년 7월 중순 ~ 8월 초순
- **신청 방법** 지원자접수: 1차 선발자 선캠프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검사지 제출, 미제출자는 선발병단에서 제외) → 2차선발자 공지 → 사전교육
- **참여 학생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까만 얼굴, 물집투성이 발과 맞바꾼 귀한 선물

김제영_ 기계시스템공학부 3학년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쫓긴다. 나 역시 남들보다 빨리 미래설계를 하고 싶어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제대와 동시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여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저 취업준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대학생활 순간순간을 '즐길' 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찾았고, 그것이 국토대장정이었다.

'대학생들의 폐기와 열정' '자아발견' '넓은 인맥'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로 압축된 단어, 국토대장정. 19일간의 체험을 통해 그 단어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땀과 눈물, 감동의 일정을 함께한 국토대장정 4기의 이름은 '독심'이었다. 젊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을 이만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을까. 4주 조장이었던 나는 출발 전부터 다짐한 것이 있었다. 나와 묶인 6명의 대원들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뜨거운 팀워크를 만들어내겠다는 갓 그 목표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18박 19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온몸으로 느낀 우리 안의 잠재력

배려란 내가 힘든 속에서 내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다. 무더위와 피곤이 엄습해 왔지만 모든 대원들은 자기보다 옆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데 온힘을 쏟았다. 걷기 힘들어 하는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고 배낭을 나누어 메주었다. 또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온 많은 추억과 고민,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으며 서로 위로하고 파이팅을 외쳐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대장정이 끝난 지금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던 독심 대원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나 보다. 우리 모두는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눈에 새겼고,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던 이름 모르는 이들에게서 아름다운 세상을 느꼈다. 앞으로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대원들에게 미리 조언해 주고 싶다. 국토대장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무한 잠재력을 알게 될 거라고. 나는 우리 여자대원들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이 좋다고 하지만, 내면의 체력은 여자가 더 강하다는 걸. 힘들어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걷던 여자대원들에게 마음의 박수를 다시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기회 준 전남대 자랑스러워

국토대장정은 나를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큰 도전이었다. 이 속에서 얻은 자신감이라는 결실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감사하다. 쉬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 다양한 루트를 얻어가는 개척자가 될 수 있다. 나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나는 국토대장정을 통해 배웠다. 그래서 난 전남대학교가 참 자랑스럽다. 지방국립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만 더 우리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키워주려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면 좋겠다. 훗날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패기와 열정의 기억을 만들 후배들의 도전을 기대한다.



04

지리산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자 지리산 종주

어차피 내려올 산을 왜 힘들게 오를까. 성삼재에서 출발해 1박2일 동안 화개재~연하천~세석~천왕봉~중산리 주차장까지 30.5km를 종주하며 얻는 것이 단지 정상에 선 성취감뿐일까. 뒤쳐진 이에게 손 뻗어주는 동료애, 아득한 절경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감, 상처 나고 까진 발로 길을 헤쳐 가며 만나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한단계 성숙한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초록이 눈부신 6월이 오면 아름다운 도전에 동참해보자.

Program 04. Tip

● 개요 2010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극기인성 함양 영역 중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여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까지 총 30.5km를 종주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 시기 매년 5월중 홈페이지 통해 공고 ● 모집 인원 남학생 19명, 여학생 19명 ● 운영 기간 매년 6월중 1박 2일 ● 선발 절차 지원자 접수 → 1차 선발자 선정스포츠 센터에서 체력측정 검사지 제출, 미제출지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 → 2차 선발자 공지 → 사전교육(사전 교육 불참 시 최종 선발자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지리산 종주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참여 학생 혜택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배낭, 반팔, 바지, 랜턴 등 장비 지급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역경 이겨야만 정상의 절경 즐길 수 있어

박지현_ 독일언어문학과 2학년

드디어 새로운 도전의 시작

눈을 감으면 아직도 1915m 천왕봉에서 본 지리산의 아득한 절경이 눈앞에 선하다. 새벽 4시, 지리산국립공원에 도착해 단체사진을 찍고 조별로 출발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느낌에 약간 들뜬다. 하지만 험한 발걸음도 잠시, 10kg이 넘는 배낭을 데고 오르막을 걷다보니 다리는 무거워지고 어깨가 눌려왔다. 힘들었지만 그 날은 운 좋게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축축한 흙냄새가 났고,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자유롭게 자란 여러 나무와 풀이 아름다웠다. 안개에 싸여 아득하게 보이는 식물들의 초록빛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워서 지칠 때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고 조원들과 탄성을 짓기에 바빴다.



나를 가로막은 세 번의 고비

지리산을 종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세 구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첫 번째 고비는 바로 토끼봉이었다. 꽤 긴 오르막이었는데, 그 느낌은 기마자세로 전대 대운동장 세 바퀴 정도를 걷는 느낌이었다. 나 때문에 조 전체가 체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있는 힘을 다 짜내 올랐던 것 같다. 두 번째 고비는 연하천에서 벽소령으로 가는 3.6km 구간이었다. 길기도 하지만 큼직하고 뾰족한 바위들이 많아 기둥이 산을 타야 했다. 거기에서 새 등산화에 복시빠 뒤쪽이 눌러서 아프기 시작했다. 복시빠에 신발이 닿지 않게 하려고 발목에 힘을 빼고 걷다 여러 번 발을 접지르기까지 해서 종주가 끝날 때까지 나를

힘들 때는 너무 괴로워서
2초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힘들게 했다. 마지막 고비는 첫째 날 목적지인 세석 대피소로 가는 바로 앞 구간이었다. 목표에 거의 도착해간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기 때문인지 마지막 오르막과 계단이 끝도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4시간의 산행이 끝나고 오후 6시쯤 세석산장이 눈앞에 보이자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정말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했다.

정신 재충전한 소중한 경험

다음날 아침은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이른 산행을 시작했다. 첫째 날에 비하면 둘째 날은 10km 정도의 코스로 별로 힘들지 않았다. 조원들과 모여 천왕봉에 올라 지리산의 웅장한 산맥과 운무가 깔린 절경을 내려다보는 순간의 성취감은 정말 짜릿한 것이었다. 천왕봉에 오르기까지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사람만이 이 절경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힘들 때는 너무 괴로워서 2초마다 한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정신은 재충전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05

온고지신의 길을 걷다

남도문화유산기행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참 무관심하다. 역사과목은 국영수에 밀린 지 오래고 ‘한국적인 것’은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남도문화유산기행이 매년 개최된다. 2010년 9월에는 2박 3일 동안 진도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진도대학교에서 남망산, 소포민속마을, 운림산방, 진도 아리랑비까지 하루 10~20km를 걸으며 진도의 투박한 아름다움과 정겨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Program 05. Tip

- **개요** 옛 문화와 유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교양을 함양하고 강의실 안에서 전문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도리를 일깨워 통섭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모집 대상 및 인원** 학부생 전체 중 40명 ● **모집 기간 및 실시 시기** 매년 9월중 ● **선발 방법** 홈페이지 통해 공고 후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단순 여행이 아니라 참가동기가 명확한 지원자 우선 선발
- **체험 내용** 탐방지 사전교육, 남도 유적지 도보여행, 육자배기, 남도들노래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74

Program 05
제대로 맛보기!

남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김미정_응용화학공학부 3학년

새삼 느낀 우리 소리·총의 멋

어렸을 때는 촌스럽게만 느껴졌던 우리 음악과 문화가 점점 친근해진다. 어릴 적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이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담백하고 신뜻한 음식을 찾는 것을 보면 내가 점점 더 토종 한국인이 되어가나 보다. 진도에서의 많은 경험들 중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은 마지막 풀이곳이 정점이었다.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징, 팽과리 모든 악기가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무난하고 지루한 악기라고 생각했던 징이 강·약 리듬을 타면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토요일속여행공연의 강강술래는 최고였다.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들었고, 할머니 한분이 계속 춤추시는 모습에 같이 신이 났다. 소포마을 공연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 한 명은 관속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은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진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소리를 해주셨다. 그 다음 상어를 메고 걷기도 하고, 실제 상어를 메고 부르던 소리를 들었다.

공연마다 다른 즐거움과 애환

세 공연을 모두 돌아보며 느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연은 공연자들의 즐거움이 느껴졌고, 세 번째 공연에서는 애환이 느껴졌다. 앞의 두 공연은 무대 위 공연자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직업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연주와 상황을 즐기면서 푹 빠진 것이 눈에 보였다. 반면 세 번째 공연은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분명 앞의 두 공연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사실이었다. 앞의 두 공연은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공연이었던 반면, 세 번째 공연은 고되게 세상살이한 어르신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와 실제적인 느낌이 들었고 한이 전해지는 듯 했다.



남도문화의 새로운 경험과 발견

집도 산행에서는 산행과 바다구경을 모두 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세방낙조에서는 일몰 전 북치는 체험을 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쳐보았던 장구와 썰과리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기분이 새로웠다. 둥그렇게 앉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를 북을 치면서 걸으려니 약간 창피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번 진도 기행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나고 자란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니 놀라웠다. 원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기행은 참 즐거웠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3일 동안 너무도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06

선배님! 전공 공부 같이해요 전공멘토링

공부하다 모르는 것 물어보기 참 쑥스럽지 않은가. 누구에게 물어볼까 고민도 되고, 혹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땐 노련한 선배들과 함께 하는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보자. 1학년들은 기본적인 학습 토양을 닦고, 2~3학년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공부 습관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Program 06. Tip

- **대상** 여수캠퍼스 학부 재학생 ● **모집 시기** 매년 3월 초(1학기 활동 평가결과 탈락 팀 발생 시 9월 중 추가모집) ● **모집 인원** 50팀 250여 명 / 팀 구성 : 6명(학년별 1명 이상, 지도교수 1명) ● **신청 방법** 팀 구성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 4층 교학과에 제출 ● **활동 기간** 3월~6월, 9월~12월(학기별 운영) ● **활동** 전공과 관련된 팀별 목표에 따라 주1회 2시간 이상 전공 심화학습 / 주별 활동 보고서 및 학기별 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우수활동 팀 선발 ● **지원** 학기별 활동비 지급 /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및 여수캠퍼스 도전점수 15점 부여 / 우수활동 팀 시상금 지급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일주일 4시간, 천금 같은 시간이죠

국제통상학전공 <we hire>

남근탁, 김준석, 나찬기(1학년) 정선영, 강은영(2학년) 송수현, 신화진(3학년)

팀명 'we hire'는? 우리는 취업한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취업의지를 담고 있죠.(웃음) 또 발음상으로는 '위하여'가 되요. 서로를 위하고 이끌어가는 멘토링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학년을 중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 열의가 높은 학생들을 추천해서 1학기에 8명이 모여 시작했고, 지금 7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나? 일주일에 4번 모여요. 월·수·수·수 온라인 동영상으로 토익공부를 하고, 화·목은 자격증 공부를 해요. 지금은 얼마 후에 있을 유통관리사 준비를 하면서 오답노트와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유통이나 경제부분 신문 스크랩을 해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스타디도 해요. 모든 과정에서 반복학습과 복습을 하고 멘토들이 주기적으로 학업능력을 체크하다보니 다들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팀의 특별한 점 일단 모이는 횟수부터 달라요. 다른 팀의 2배니까요. 함께 정한 공부 방식을 잘 수행하고 있고 팀워크도 다른 팀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활동 이전 VS 이후 일주일에 4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그냥 흘러 보냈다면 정말 아깝게 느껴졌을 시간이죠. 의무감, 책임감으로 책상에 앉아 함께 공부하면서 어느새 공부에 익숙해졌고,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어 뿌듯해요. 흐지부지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세가지 TIP 첫째, '똑같이 주어진 1시간, 남들과는 다르게 보내겠다'는 마음가짐! 그러니 공부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팀원들과 함께 하세요. 둘째, 학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자! 학과 취업캠프나 특강도 함께 들으면 큰 효과가 있어요. 셋째, 무리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목표를 잡자! 목표가 너무 과장되면 좌절하기 쉽고 너무 느슨하면 성취감이 낮아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학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선배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학습 멘토링과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전공 공부도 서로 피드백해주면서 많이 의지 되고 도움이 되죠.
혼자 하면 미루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되기도 하는데, 팀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다른 팀원들을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힘도 얻어요.



07

내가 잘 할 수 있는 봉사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전공과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서 단순한 선행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키우고 인성 및 품성을 기르는 훈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Program 07. Tip

● **개요**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 ● **목적** 단순한 선행활동이 아닌 전공영역에서 행해지는 봉사경험으로 전공학문의 목표를 강화하고자 함 / 학생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로 변화를 주도하고 다음 세대를 움직이며 일깨우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 **추진 방향(방침)** 지역사회와 전공학문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 학과나 전공의 특성과 연계성을 갖는 독창적인 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전공학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상호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 **선정 규모** 10팀 내외 (팀당 참여인원 : 5명~15명 내외(지도교수 포함)) ● **지원 단위** ① **교과목** :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로 수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② **학과(전공)** : 학과(부) 또는 전공 일부 교수의 지도 아래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③ **단과대학** : 단과대학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 **지원 규모** 각 50~250만원 ※ 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의·치·약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 ● **모집시기** 5월 ● **활동시기** 6~11월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083

08

이번 학기엔 경북대, 내년엔 부산대

학생교류

나 자신과 세상에 눈을 뜨는 경험을 위해 꼭 해외로만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다른 대학의 학생이 되어 그 학교의 강의를 수강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기회도 있다. 서울대·경북대·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를 비롯해 조선대·순천대·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 대학, 중앙대·고려대 등 수도권 사립대에서 한 학기 이상 교류학생으로 지낼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대학과는 다른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충분하다.

Program 08. Tip

1. 영·호남(경북·부산·울산대) 학생교류

● **모집학과 및 인원** ① **모집학과** 전학과(의·치대 및 수의대 제외) 울산대학교는 2,3학년에 한함(의·치대, 약학대, 수의대, 사범대, 간호대 제외) ② **모집인원** 경북대 40명, 부산대 20명, 울산대 10명 ③ **모집대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8학기 및 졸업 최종 학기 수강자는 제외) ● **모집시기** 1학기 : 1월 초 / 2학기 : 7월 초 ● **교류 수학 기간** 한 학기(연장 희망자는 선발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지원 자격(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학부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혜택** 수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 제공하고 기숙사비는 학생 본인 부담 (단, 울산대학교는 기숙사비 면제) ※ 방학기간 중 기숙사 이용료는 학생본인이 별도부담 ● **문의** 학생지원과 062-530-1104

2. 기타 대학 학생 교류

구분	주요협정내용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산업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일반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울산대학교	- 영호남 교류(학생지원과 주관) - 학비면제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산업대학교 한려산업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군산대학교	- 학생대학원생 포함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 계절학기만 교류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 학생교류 및 학점교류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류

● **지원자격 (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함)**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대학원생 지원자는 기 이수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기당 취득학점** 정규학기 : 개인의 제한학점 범위 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 **모집시기** 1학기 : 7월 초(하계계절학기 6월 초) / 2학기 : 1월 초(동계계절학기 12월 초) ● **교류 수학 기간** 통산 2학기 (계절학기 제외) ● **승인절차** 타 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 소속 학교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 학사관리과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과 자료 검토 → 교류대학에 추천 → 교류대학으로부터 승인 통보 → 해당 대학에 통보 및 알림방 개제 ● **문의** 학사관리과 062-530-1063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통섭인재
프로그램

◀ 페이지를 열어 쓰세요



나만의 동성인재 프로그램 캘린더

122~123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 / 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울곧은 인성함양 프로그램 (구, 된사람 전남대생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072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지원과 062-530-1104												
국토대장정 학생지원과 062-530-1074												
지리산 종주 학생지원과 062-530-1074												
남도문화유산기행 학생지원과 062-530-1074												
전공멘토링(여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4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학생지원과 062-530-1083												
학생교류 학생지원과 062-530-1104 / 학사관리과 062-530-1063												

“취업지원과와 친해지면 좋은 일 생겨요”

“우리 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안달난 사람들이예요. 부지런히 우리 사무실을 드나든 학생들은 꼭 좋은 기회를 잡게 되죠. 취업지원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즐겼던 한 여학생은 총장 추천 정보를 얻어 대기업에 입사했고, 3학년 취업 서포터로 활동하며 처음 취업로드맵을 그려봤던 남학생은 졸업도 하기 전에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보면 금방 한 학기, 일 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성공적인 취업은 구체적인 진로설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취업지원
Dream Manual

성공취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광주캠퍼스 백도 층과 여수캠퍼스 학생회관 3층을
 부지런히 드나들 것을 권한다.
 진로 저성탐색부터 취업캠프, 현장실습,
 이력서 작성과 면접훈련까지,
 취업지원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다보면
 어느새 당신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취업포털 <http://jobs.chonnam.ac.kr>

광주캠퍼스 취업지원과(백도 1층)

취업지원 062-530-1105~8 / 진로교육 062-1110~2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학생회관 2·3층) 061-659-6232, 6233, 6237

성공취업,
 즐겁게
 도전하자!



취업지원 드림캘린더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이다. **꼼꼼한 일정행기**는 실속있는 **프로그램 고수가 되는 중요한 덕목!**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운영기간 ■ 모집기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취업서포터 취업지원과 062-530-1115														
커리어우먼 스쿨 취업지원과 062-530-1115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취업 두드림 한마당 취업지원과 062-530-1105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취업지원과 062-530-3785/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Job Matching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0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지원과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생애와 직업탐색 취업지원과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핵심취업 동아리(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청경 도전100-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경진대회(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제공된 드림캘린더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학년·2학년 나의 매력을 발견하자! 자기 탐색기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한 자기탐색 / 영어회화 제2외국어 등 어학공부 시작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한 리더십 및 나눔을 실천 /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

● 3학년 취업 내공 쌓기! 구직 능력 강화기

학점 외국어 성적관리(학점 3.5 이상, 토익 750점 이상) / 외국어 회화 능력 강화
(삼성전자 OPIc 5단계 이상) / 직무에 맞는 현장실습, 자격증 획득, 공모전 참여

● 4학년 합격까지 이제 한 걸음! 적극적 구직 활동기

매일 채용정보 탐색, 채용설명회 및 기업탐방 / 취업스터디 활동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훈련, 구직 활동

01

취업 홍보는 물론 경쟁력까지 키우자

취업서포터

한마디로 '취업지원과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다. 취업지원과가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공모전, 기업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취업경쟁력도 쌓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채용 동향과 기업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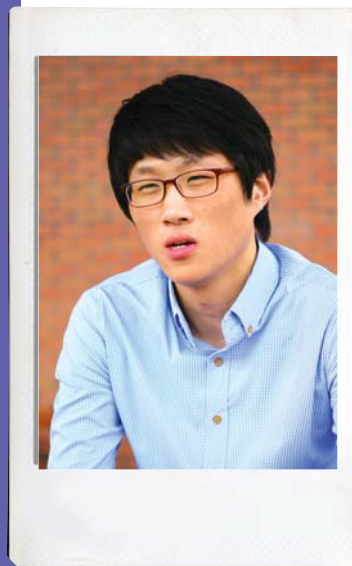
Program 01. Tip

● **개요**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취업 프로그램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학생들의 취업준비 붐을 조성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트레이닝을 시켜 취업성공의 역할 모델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5~6학기 재학생의, 치, 수, 약, 간호, 사범계열 제외) ● **모집인원** 20명 내외(ampus캠) ● **선발방법** 학점, 외국어, 자기소개서,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전신능력 우수자 ※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학생 우선 선발 ● **모집 시기** 매년 12월 중 모집, ● **운영 기간** 3월 ~ 12월 운영 ● **신청방법** 방문 접수(신청서 자기소개서, 토익성적증명서,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각 1부) ● **활동내용** 단과대학·학부(과)별 취업프로그램 홍보, 취업지원과 행사 지원, 팀별 과제 수행, 외국어 및 자격증 응시, 봉사활동, 공모전 도전, 기업탐방을 통한 채용정보 수집, 취업관련 아이디어 제안 및 모니터링 등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팀별 평가 기준 : 참여도,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홍보활동 실적 등 / 개인별 평가 기준 : 참여도, 외국어, 자격증, 임원활동, 공모전, 홍보활동 실적 등 ● **학생 혜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개인별 근로장학금, 토익 또는 OPIc 응시료 지원, 최우수팀 및 활동 우수자, 우수제도 제인자 포상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5

Program 01
제대로 맞반!

취업정보지 만들며 취업준비 고수 됐어요

정진우_ 전기공학과 3학년



취업서포터 군대를 전역하고 2학년 복학 후 개인적으로 인터넷 카페나 책 등을 이용해 취업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우연히 과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취업정보를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취업서포터'를 알게 되었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정보지 제작팀 서포터들은 온라인 홍보팀, 행사기획운영팀 등 네 팀으로 나눠 활동해요. 저는 취업소식지 취재와 기사 작성을 담당하는 '정보지 제작팀'에 참여하고 있어요. 1년에 네 번 발행하는 건데요, 기획회의와 취재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교수님과 함께 취업 동아리를 취재하면서 그들의 열기에 자극도 받았고,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늘었습니다.

이 활동의 매력 취업지원과에 있으면 채용설명회나 채용상담, 취업지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저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회사 비전 등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취업방향을 정할 수 있었죠.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의면접이나 이미지 메이킹 등 여러

02

위풍당당 그녀

커리어우먼 스쿨

3학년 여학생들만을 위한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다. 본격적인 구직활동기인 4학년을 앞두고 우선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구직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진로설계부터 자아훈련,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경력개발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 커리어우먼 스쿨에서 '여학생만의 특권'을 누리보기 바란다.

Program 02. Tip

- **개요** 3학년 여학생 중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수준 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강화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정신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등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공취업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고 있다.
- **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여대생의, 치, 수, 약, 간호, 사범계열 제외
- **모집인원** 160명 (학기별 80명)
- **선발기준** 토익점수 보유자
- **모집시기** 매년 4월, 8월
- **운영기간** 매년 5~12월(1학기: 5~7월, 2학기: 8~11월)
- **신청방법** 방문 접수(커리어우먼스쿨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토익성적증명서 1부)
- **활동내용** 외국어 및 자격증 응시, 팀워크 다지기 신행, 기업체 팀방, 팀별 스테디, 직무컨설팅, 여성CEO 특강 등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팀별 평가 기준 : 참여도, 활동계획, 활동결과, 외국어, 자격증, 관찰평가, 공모전 / 개인별 평가 기준 : 참여도, 외국어, 자격증, 임원활동, 공모전
- **시상 내역**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등재 / 최우수팀, 우수팀 선발 / 개인 최우수자, 우수자 선발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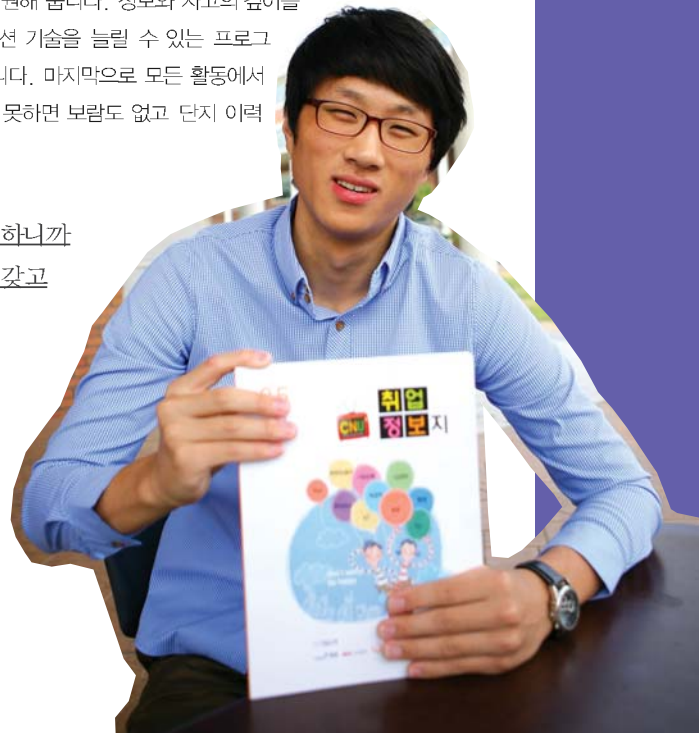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에요.

이전 VS 이후 이전엔 시간 여유가 있고 조금 무미건조했다면, 지금은 학과 공부와 서포터를 병행하느라 바쁘지만 내용은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소극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을 맡다 보니 추진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졌고요. 기획력, 관계 맺기 등 다른 팀원들의 장점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자신감은 무기 1학년 때까지 해도 참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학생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의 TIP 학교에서 열리는 기업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에는 꼭 참가하세요. 인터넷에도 기업 관련 자료가 많이 있지만 실무에서 일하는 채용담당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세요. 외부에서라면 많은 돈을 내고 들어야 하는 리더십 캠프나 취업특강들을 학교에서는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정보와 사고의 깊이를 채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똑똑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보람도 없고 단지 이력서의 경력 한 줄로만 남습니다.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1년, 내 꿈에 당당해졌어요

박가희_ 환경공학과 3학년

프로그램 정보통 평소 학교홈페이지나 오프라인 게시판에 잘 살펴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보고 주변 선배들에게도 적극 권해요. 1학년 때부터 국제화과정, 취업스터디, 자기진단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커리어우먼 스쿨과 근로장학생, 대외적으로는 전국환경봉사단체, 수자원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커리어우먼 스쿨 취업 기반을 다져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토익점수, 한자자격증 등 수료 기준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취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알찬 1년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죠.

딱 짜인 1년 활동 1학기 땐 1대1 진로컨설팅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독서토론, 외국어·자격증 등 팀별 스터디를 하면서 기본 실력을 길러요. 여름방학에 영어집중강좌를 받고 2단계 선발을 거쳐 팀을 재조정해요. 2학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별 컨설팅을 받습니다. 기업탐방, 인적성검사 스터디를 하고 모의면접 등 취업능력증진프로그램에도 참여하죠.

공기업팀 스터디 저는 수자원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기업팀에 속해 있어요. 금융, 경영, 마케팅 등 7~8개 팀 70~80명으로 시작하지만 지금은 35명 내외예요. 힘들어서 그만 두거나 스터디 불참 등의 이유로 절반 정도가 탈락했거든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일주일에 다섯 번 한자시험과 토익스터디를 해요. 공부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하죠.

해병대 크기 훈련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름방학 중 1박2일이었는데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보트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극기 훈련이 싫어서 커리어우먼 스쿨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걸 느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다질 수 있었어요. 특히 조교님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셨던 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활동 전 VS 후

이전에는 ‘전공 실려야지’라는 것 말고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여성CEO 강의도 듣고 취업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라는 취업목표도 정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죠. 욕심껏 닦치는 대로 하던 여러 가지 활동도 정리하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활동만 골라 할 수 있게 됐어요.

취업의 Tip

취업지원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타학과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폭넓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커리어우먼 스쿨 활동을 하면서 취업지원과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그분들이 가진 팁과 노하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분들은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취업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학년별, 시기별로 성취목표를 세우고 미래 계획을 설계해보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03

컨설팅은 개별로, 취업활동은 뭉쳐서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학교가 나를 에이스로 키워준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개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 스킬을 기르고, 같은 직종을 희망하는 팀별로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한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취업 주전 선수가 되어보자.

Program 03. Tip

- **개요** 대기업 입사지원 자격을 갖춘 4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대상** 4학년 재학생
- **선발 방법 및 선발 인원** 이공계특의 600점 이상, 학점 3.0 이상, 인문계특의 700점 이상, 학점 3.0 이상 포함 100명 내외
- **모집 시기** 5월, 11월
- **운영 기간** 6월~11월, 12월~다음해 4월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지원신청서 1부, 자기계발활동기록부(점수포함) 1부)
- **활동 내용**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개별 클리닉, 취업스터디, 입사지원서 및 이미지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기업분석 발표대회, 취업멘토링, 기업체 탐방 등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취업스터디 활동 / 기업분석 자료 수집 및 발표 / 직무적성검사 결과
- **참여 학생 혜택** 취업담당자의 개인별 취업 관리(취업추천 우선권 부여) / 하반기 취업 시즌 대기업 지원시 개인별 컨설팅 실시 / 직무별 스터디를 지원 및 우수 활동팀 포상 /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11 <http://cafe.daum.net/cnuace>

Program 03
제대로 맞받기!

좋은 팀 만들면 불가능한 것 없어요

김지혜_경영학과 4학년

학교 프로그램 달인 1학년 때부터 공부일촌, 세계교육기행, 취업캠프, 차세대 CEO과정 등 수많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도 다녀왔고, 경영대 동아리 '네오펍' 회원으로서 토론대회 '호락호락' 운영팀장도 맡고, CJ공모전에서 우수상도 받았죠. 지금 경영대에서 진행하는 취업멘토링과 취업 에이스의 팀장을 맡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하나를 그만둘까 했는데 지금은 둘 다 포기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취업 에이스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기에는 면접·자기소개서 특강, 인적성시험을 보았어요. 방학 이후에 다시 인적성시험을 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방학 동안 동기부여가 잘 됐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과발표회도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잘 하는 팀들을 보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혼자 하면 지치거나 포기하기 쉬운데, 프로그램 안에서 팀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독여주는 게 좋아요.

영업·마케팅팀 취업분야에 따라 10여 팀이 구성되었는데 저는 영업·마케팅팀이에요.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우리 팀은 매일 신문스터디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자기소개서 피드백, 인성면접 스터디, PT·토론 스터디를 해요. 방학에는 집중적으로 토익을 파고들었죠.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정오까지 정말 독하게 공부했더니 팀원들 9명이 평균 850점을 넘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웃음)

경험이 취업 준비 1~2학년 때의 다양한 경험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 해외 인턴 등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 많잖아요. 시기별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일찍부터 영어나 학점에만 투자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그것뿐인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발표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겠죠.

삶의 에너지, 다이어리 남들도 흔히 쓰는 거지만 저에겐 좀 특별해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을 다잡다보면 에너지가 다시 솟는 기분이 들거든요. 평균 세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신기하게도 다이어리를 바꿀 시기쯤 되면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끊임없는 자기암시의 촘촘한 실천계획이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 소름끼쳐서 놀라기도 해요.

취업의 Tip 1학년 때는 학교를 찾는 유명 인사들의 특강을 꼭 챙겨 들으세요.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1~2학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고, 좀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강의도 듣고 세계교육기행, 공모전, 해외 인턴에도 도전해 보세요. 3학년쯤 되면 리더나 기획자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4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에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겠죠?



04

취업에 필요한 모든 걸 한번에 취업두드림 한마당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집중해서 운영하는 취업 페스티벌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증권, 두산, 우리은행, CJ그룹, SK텔레콤 등 국내 우수 기업 50여 곳의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이 이루어지며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준비 특강, 이미지 메이킹 등 실질적인 구직 스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Program 04.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시기 매년 9월중
- 내용 기업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 / 입사지원서 · 면접 특강 및 컨설팅 / 호감가는 첫인상 만들기 / 취업 성공모델 따라잡기 / 기업체 인적성검사 / 취업영어 특강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5

실질적 구직기술 배우는 '취업두드림' 현장



05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보자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진로검사, 성격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취업지원과 심리상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검사가 가능하다.

Program 05.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수시 ● 모집시기 및 운영 기간 수시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활동내용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 탐색 검사 실시 ① **진로적성** Holland 적성탐색검사 (직업적 성격유형을 R(실제적), I(탐구적), A(예술적), S(사회적), E(기업적), C(관습적) 모형으로 측정) / 생애진로검사 / 적성진단검사 ② **성격/인성** MBTI성격유형검사 :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심리유형 파악하도록 도움 / 성격진단검사 : 책임감, 안정성, 사회성 등과 같은 성격요인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측정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 ● 문의 취업지원과 심리상담실 062-530-3785 /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06

원하는 취업 스킬 기르기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기업 채용 시스템에 맞춘 체계적인 취업 스킬 향상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및 취업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다양한 취업특강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rogram 06. Tip

● 대상 재학생 전체 ●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해당 프로그램별 인원 선발 ● 모집시기 수시 ● 운영기간 수시 ● 신청방법 메일 접수 ● 활동내용 ① 면접능력증진 프로그램 인성면접, 토론면접, 영어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 유형별 면접지도 ② 효과적인 토론 및 PT스킬 강화 프로그램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면접 대비 ③ 기업체 모의 인·적성검사 모의 SSAT, 직무 유형 탐색 검사 ④ 기업별 맞춤형 모의면접 기업체 인사담당자 초청 맞춤형 모의면접 ⑤ 취업시준 맞춤형 특강 이력서 작성법, 호감 가는 첫인상 만들기, 이미지 메이킹 및 면접법 특강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11,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07

열정으로 당당하게 도전하자

Job Matching 프로그램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이 부족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졸업예정자들을 선발하여 자기탐색, 구직스킬 등을 교육하여 취업 알선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텔러직 등 구인 요청이 많은 직종과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알선하여 취업률을 높인다.

Program 07. Tip

● 대상 올해 하계 졸업자 및 내년도 동·하계 졸업예정자 / 외국어 점수, 학점 무관 / 취업시장에 도전의지와 열정이 있는 자 ● 모집 인원 45명(15명씩 3개 그룹 활동) ● 모집 시기 11월 중 ● 운영 시기 12월 ~ 다음해 5월 ● 신청방법 서류전형, 개별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지원서,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입사지원서 각 1부) ● 활동내용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 자기탐험, 직업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중 하루 6시간씩 5일간 운영 / 직무적성검사 / 개인별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 구인정보 제공 및 맞춤형 취업알선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10

08

진로아카데미

자기 탐색 및 분석을 통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진로설계와 커리어플랜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며, 취업전형 스킬 배양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및 모집인원 1~4학년 재학생 ● 모집시기 3월~12월
- 운영기간 3월~12월 ● 신청 방법 학과 사무실 신청

09

취업캠프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와 직업탐색' 교과목 강의 기간 중 1박2일로 진행되는 취업 합숙여행이다. 수강생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고 정장 착용이 원칙이다. 입사지원서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인사담당자 초청 모의면접 등을 통해 취업 내공을 강화한다.

- 3학년 취업동향 소개, 직무능력검사 및 해석, 인적성검사 준비방법 소개, 면접 롤 플레이 및 이미지 메이킹, 재학생 선배초청 간담회, 진로 목표 설계 컨설팅, 자기소개서 피드백 등 진행 ● 4학년 1분 자기 소개 Conies!, 직무능력검사 및 해석, 인적성검사 준비방법 소개, 면접 롤 플레이 및 이미지 메이킹, 선배 신입사원 초청 세미나, 인성 면접자기소개서 피드백 병행, PT 면접 등 진행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06

10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준비에 앞서 자기 탐색의 시간과 경험쌓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1, 2학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과목이다. 자기분석, 직업탐색, 커리어플랜 작성법, 공모전, 셀프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단과대학(학부)에서 운영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하도록 돕는다.

- 대상 및 모집인원 1~2학년 재학생으로 단과대학별 100명 내외 ● 모집시기 8월 (2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운영기간 2학기 ● 신청방법 수강신청 ● 활동내용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실습형 프로그램 위주 진행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11

생애와 직업탐색

3, 4학년들의 구직능력 강화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채용전망과 취업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기업 인·적성 검사, 직무 이해 및 면접 유형별 대처법 등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돕는 명품 교과목이다. 강의 기간 중 실시하는 취업캠프에서 모의면접(인성·PT·그룹토의)을 직접 실습할 수 있다.

- 대상 및 모집인원 3~4학년 재학생으로 학기별 300명 ● 모집시기 2월, 8월 (1,2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운영기간 1, 2학기 ● 신청방법 수강신청 ● 활동내용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실습형 프로그램 위주 진행 ● 문의 취업지원과 진로교육실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12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상담을 유치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의 채용정보와 자기에 맞는 기업에 입사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대상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시기 연중 ● 신청방법 취업포털 참조 ● 활동내용 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상담 참가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5/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13

현장실습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사회 및 기업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능력도 쌓고 학점도 받는 교과과정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결정 및 취업에 도움을 제공한다.

- 대상 재학생 ● 운영기간 계절제 : 하계, 동계 8주 실습(5학점) / 학기제 : 방학~학기중 24주 실습(15학점) ● 신청방법 취업포털 참조 ● 문의 취업지원과 062-530-1107

14

목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핵심취업 동아리

여수캠퍼스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들을 위한 알짜 취업 프로그램. 희망 취업 분야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1년 동안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한다. 개인별 활동계획서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늘 지원자가 몰려드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Program 14. Tip

- 개요 취업 희망분야가 같은 학생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의 채용동향 다변화로 획일적인 취업정보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변하는 채용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을 키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 대상 여수캠퍼스에 재학 중인 3~4학년 ● 모집시기 매년 4월 중 ● 모집인원 공무원, 국영기업 및 대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기타 직종분야 등 5개반 75명 선발 ● 운영기간 4월 ~ 12월 ● 신청방법 교학과 취업지원팀 및 Job care(학생회관 3층)에 방문 접수(지원서 1부, 개인별 취업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1부) ● 활동내용 본부 주관 교내 취업특강 참가 / 공인 외국어시험 응시 및 전공 관련·전공외 자격증 취득 / 청경 도전100 모의면접 경진대회 참가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 특강 참가 / 개인별 활동계획서 준수 / 취업(채용) 박람회 참가 및 우수기업체 탐방 활동 ● 참여혜택 맞춤형 수험정보 제공 / 면접지도, 취업특강, 취업동문 연계체제 구축 / 공동학습 및 정보공유를 위한 학습공간 제공 / 운영예산 지원(수험서 구입 및 응시료) / 학기별 도전점수 부여 (5점)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영양사 꿈 향해 더듬이 활짝 '더드미'

식품공학·영양학부 <더드미>

김현숙, 박병모, 류현경, 조아라, 김남희, 이경은

팀명 더드미는? 개미는 더듬이를 통해서 자신이 갈 방향을 찾는다고 하죠. 저희도 개미의 더듬이와 같은 핵심취업동아리를 통해서 취업의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더드미'라고 지었어요. 취업지원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배가 추천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들의 꿈 처음에는 개개인이 취업에 대해 알아보다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들끼리 모이면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같은 학부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영양사라는 한 가지 꿈을 향해 팀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취업 방향도 같고 취득해야 할 자격증도 공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가족처럼 챙기면서 돈독하게 지내요.



동아리 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주로 자격증 관련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한 달을 주기로 스스로가 세운 목표와 실천사항을 체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사로 근무하는 선배님을 찾아뵙거나 기업체 견학을 가요. 하림공장, 농심, 부산국제음식박람회 등을 다녀왔는데 근무 환경이나 기업의 인재상 등을 담당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어요. 다녀온 뒤엔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자기반성 시간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 막막하기만 했던 취업의 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모의면접, 1대 1이력서 클리닉 참가, 정보수집에 따른 희망업체 선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기업 견학을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파악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래의 내 직업은 무엇이고, 어느 기업에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취업 동아리

취업에는 취업 동아리 프로그램마다 목적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일촌 같은 프로그램들은 학업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취업과는 좀 거리가 있고 한 학기 동안만 하는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죠. 핵심 취업 동아리는 3~4학년들이 일 년 동안 오로지 취업에 관련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취업의 TIP 첫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보다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개발시키고 자신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취업정보에 더듬이를 바짝 세우세요. 취업지원과와 학교 홈페이지에는 취업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셋째, 직접 취업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자. 취업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찾았다면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도 핵심 취업 동아리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에 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15

청경! 도전100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경진대회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맞춤형 개인지도, 모의면접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스킬을 향상시키고 취업률 100%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상 졸업생 및 재학생 ● 시기 매년 5, 10월 ● 혜택 최우수상 2명 등 총 10명 시상,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취업추천 우선권 부여, 참여학생 도전점수 부여 ● 문의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3~4

16

우수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취업특강, 면접 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우수학과의 특성에 맞춘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대상 10개 학과 500명 ● 운영방법 신청학과에 한해 프로그램 제공 ● 혜택 참여학생 도전점수 부여 (회당 2점) ● 문의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7

● 여수캠퍼스 취업지원 공간


“성공취업 궁금하다면 학생회관 3층 Job Cafe로 오세요!”

먹고, 쉬고, 놀고, 재충전하는 공간인 학생회관. 이 곳 3층에는 특별한 Cafe가 있다. 에스프레소 향기나 카라멜 마끼야또의 달달함은 없지만 취업을 향한 열기와 진지함이 넘치는 'Job Cafe' 다.

취업지원팀의 친절한 선생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고민을 해결해준다. 진로검사, 성격검사, 인·적성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상담기록부에 신청하면 스케줄을 잡아 연락해준다. 검사 후에는 상담전문가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회당 2점의 도전점수가 부여된다. 기업체들의 변화하는 채용동향을 담은 다양한 취업 정보 책자들도 읽을 수 있다. 이전에 진행했던 면접특강을 동영상 CD로 볼 수 있고, UCC공모전 수상 작품 등의 DVD 상영도 한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학생, 졸업생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 심리검사 및 상담은 방향을 포함해 연중 이용할 수 있다. Job Cafe 문턱이 달도록 드나든 당신, 성공취업의 꿈을 이루리라.





선생님들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흠뻑 읽어라!

CJ 제일제당 입사

임미란_ 불어불문학과 (2011년 2월 출)

자기소개서

1. 입사지원동기 - '20살에 서점경영을 시작하다'

20살 때 어머니께서는 암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부모님 대신 여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서점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경영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초·중·고생 개강이나 방학 시즌이 되면 인근 학원에 가서 직접 책 목록을 받아와 미리 교재 준비를 해놓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 앉아서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고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나를 특별 대우해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객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기억하여 'OOO님' 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들과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과는 공부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저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공유하였습니다. 소셜책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과는 대학에서 배웠던 교양을 바탕으로 작가와 문학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서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고객들께 심어줄 수 있었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게 된 뒤 1년이 지나자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약 20%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과 식품은 품목이 다르지만 영업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함과 저만의 영업 전략을 토대로 CJ제일제당 식품영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황금매일'

광주에 있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CJ제일제당이 설립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 만큼 설탕 매대 점유율이 타사제품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웰빙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올리오당 코너에서는 광고영상을 진열대 앞에 틀어놓고 매장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놓아 지나가던 고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식용유 코너에서는 백설유가 고객의 눈높이에 잘 맞는 3~4번째 줄에 진열되어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품목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류를 살펴보면 진열된 수량이나 홍보 면에서 타사제품과 비교했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신제품인 '산들애' 만 눈에 띄는 곳에 있고 기존 제품은 매대 하단에 따로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J제품이 더 많았지만 진열상태 때문에 타사제품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추석시즌에 맞춰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CJ제품은 품목이 제한적이었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하나의 세트에 함께 넣어 실속적인 세트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획인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 전략은 효과적인 상품진열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주력상품은 해당 매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은 곳에 진열하여 자연스럽게 고객의 소비를 유발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CJ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3.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어려웠거나 실패했던 경험, 대처방법 - '-를 +로 만드는 전략'

2007년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 근처에 다른 서점이 생겼습니다. 버스 한 코스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참고서가 개정되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년도 3월 달 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은 비슷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개강 시즌에 맞춰 인근 학원에 가서 책 목록을 받아와 미리 교재 준비를 해놓고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별, 학원별로 진열을 하였습니다.

둘째, 저희 서점에 없는 책을 찾을 경우에는 고객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구하기 힘든 책은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단골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신용카드나 상품권으로 구매 시 2%를 적립해드려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책을 구매할 때 적립된 만큼 차감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해 드려 실속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3가지 전략대로 운영을 하고 나니 급감했던 영업이익이 차츰 상승세를 보이면서 1년 후인 2008년 신학기에는 약 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전략만 잘 세우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손실이 생기더라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카피나 슬로건, 그 이유 - '컨디션 파워'

CJ제일제당의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 파워'의 광고에서처럼, 저의 경쟁력은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저만의 자기관리법입니다.

일례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점을 보게 되었는데, 한 고객이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을 서점의 관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정황을 조리 있게 말씀드렸더니 고객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사과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단골 고객이 되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남들과 다른 저만의 경쟁력입니다.

배경진주2

GS건설 입사

최수욱_ 전기공학과 (2008년 졸)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및 보완점 등)

"지치지 않는 정신력과 밝은 성격의 소유자."

학업문제로 일찍이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학창시절 12년 동안 결석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3년간 풍물패 "하나"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때 선배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되어 후배들과 동기들을 이끌었고, 학교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최고의 공연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는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배들에게는 다정함을, 동기들에게는 술선수범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에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세상을 항상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었습니다.

"주변을 밝게 만드는 나의 미소."

매일 아침 학교 건물에 들어서면 묵묵히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만 하시는 아주머니께 어느날 부터 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동안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나중에는 아주머니께서도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고, 지금은 아침을 아주머니께 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뭐가 그렇게 좋냐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 좋을 것도 없지 않냐며 되묻곤 합니다.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느끼며 일을 할 때, 느끼는 보람도 크고, 행복해집니다.

“시간을 소중히…”

저는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억해야 할 일이 생기면 메모를 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메모지에 적었고, 하루가 끝날 때는 메모해놓은 사항을 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자주 깜빡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시작했던 메모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메모하는 습관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2. 학교 생활에 대하여 (동아리/학회/리더경험)

“앞선 사고를 통한 도전으로 최고의 성과를.”

“년 정말 아물다” 저의 2006년 학교 학생회장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해동안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학교 학생회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년간 있었던 모든 행사에서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 대표자로서 내가 아닌 학우들과 학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였고, 학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오늘,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2006 전남대학교 중앙감사위원장.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총학생회 감사를 제가 이루어 냈습니다. 과거 감사에 관한 자료들은 전무한 상태여서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할 무렵 감사위원들의 사퇴로 인하여 어려움도 겪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라도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6명의 감사위원을 받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중앙감사위원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모든 감사 결과는 학교 언론을 통해 보도 하여 학우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백혈병 환자가 혈액이 급히 필요한데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줄수 있으세요? 갑자기 저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입니다. 병원이 학교에서 멀었지만 곧바로 달려가서 헌혈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습니다. 환자의 부모님의 후사를 정중하게 거절한 후 가지고 있던 헌혈증을 모두 드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헌혈

을 하게 되었고, 헌혈증은 환자들을 위해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헌혈을 30회이상 하게 되었고, 올해 6월 헌혈 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3. GS건설 지원동기(역량을 중심으로 기술)

“百聞이不如一見 이요 百見이不如一行이다.”

제 꿈과 노력이 깃든 건물을 짓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제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곳,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 입사를 위해 고민하던 중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인턴사원 채용공고가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해온 GS건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맥가이버 최수욱” 제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로 후배들과 친구들, 선배들이 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GS건설의 맥가이버가 되겠습니다. Best Partner, First Company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 복무시절 유격조교 생활은 저에게 강한 승부근성과 업무 추진력을 길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온갖 힘든 훈련을 마쳐야 선발되는 훈련을 통과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서있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8개월여 간의 회사생활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자재팀의 일원으로서 생산라인에 자재공급이 멈추면 안 되었기에 자재 수급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자재관리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고에서 라인으로의 자재공급시간을 단축하였고, 매월 실시하는 재고 조사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제 역량을 GS건설에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GS건설에 걸맞는 전문 설비 시공인이 되겠습니다.

4. 희망 직무 및 입사 후 포부(희망직무의 성공적 수행을 가정하여 기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내 손길이 닿은 등불을.”

“그 일은 최수욱 씨에게 물어보면 해결해 드릴 겁니다.” GS건설에 꼭 필요한 사람, 전기 설비 시공분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가장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전기 설비 시공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많이 배우는 과정의 사원의 위치를 거쳐 GS건설 전기 설비 시공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 최수욱의 알파벳 이니셜은 CSO입니다. Chief Safety Officer, GS건설에서 전기 시공 분야의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빠른 거북이입니다. 결코 지치지 않는 정신력과 도전정신으로 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세계최고의 건설회사 GS건설이 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 낼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속에서 두근두근 뛰고 있는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쳐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근사한적인 태도가 아닌, 멀리 바라보고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GS건설이 신뢰받는 Best Partner, First Company 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되겠습니다.

드림캘린더로 설계하는 나만의 취업도전 프로그램

◀ 페이지를 열어 쓰세요



나만의 취업준비 드림캘린더

152~153p 캘린더 일정을 참고로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설계해보세요.

프로그램 운영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취업서포터 취업지원과 062-530-1115												
커리어우먼 스쿨 취업지원과 062-530-1115												
취업에이스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취업 두드림 한마당 취업지원과 062-530-1105												
심리검사 및 진로적성탐색검사 취업지원과 062-530-3785/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1/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Job Matching 프로그램 취업지원과 062-530-1110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취업지원과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생애와 직업탐색 취업지원과 062-530-1106/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7												
핵심취업 동아리 (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청경 도전100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경진대회(여수) 교학과 취업지원팀 061-659-6233-4												

Dream Plus

장학금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도전점수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금

장학금

재학생 59%에 혜택,
연간 규모 325억 원

“가난은 열정을 이기지 못한다.”

전남대학교는 학업과 비전 찾기에 열정을 쏟는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격려한다. 재학생의 59%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만큼 전남대학교의 장학금은 다양하고 많다. 장학금 규모는 연간 325억 원에 이르고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재원과 수여 성격이 다양하다. 국립대학의 낮은 등록금과 함께 우수한 장학혜택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지원이다.

01

교내 장학금

- 등록금 재원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 및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금
 - 법정 장학금: 국기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학금
 - 후생복지 장학금: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용지 장학금, 복지 장학금
 - 대학지원 장학금: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전남대경시대 화입성자 장학금, 국내교류학생 장학금, 가족 장학금,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대학원)
 - 근로 장학금(학부), 교육조교 장학금(대학원)
- 발전기금 장학금: 용봉우수 장학금, 용봉 장학금, (지급 대상지정·미지정 장학금, 특별 장학금, 목적경비 장학금)
- 단과대학 장학금: 단과대학 및 학과 자체 지급 장학금
- 특성화사업단 장학금: BK 장학금(대학원), 바이오하우징 장학금(대학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장학금, LG이노텍 장학금

교외 장학금

- 정부산하기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 ①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 ② 성적우수 장학금: 국가장학생 (인문사회계, 이공계) 장학금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농어업인재양성 장학금, 농어업인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총 20여 명
 - 외부장학재단 장학금: 전국 교외장학재단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자체 선발하거나 총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총 60여 종.
 - 핵심리더 장학금: 동원 장학, 정수 장학회, 미래에셋 장학금, 우봉 장학,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장학, GS칼텍스 장학

도전·도약 장학금

- **도전 장학생**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학생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초년생에게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도전 장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학교 생활과 다양한 학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질 높은 유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
- **도약 장학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미래국제재단 장학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남다른 재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성적우수 학생(학점, 가정형편, 봉사정신 평가)
- 활동내용 : 빈곤층,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역할
- 지원금액 : 월 실적에 따라 지급(연 540만원~720만원)

용봉·청경 인재육성 장학금

개교 60주년인 2012년까지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60억 원 장학금 조성운동'을 전개, 모아진 장학금을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할 예정. 2011년 1월 현재 교직원과 동문, 대학 주변 상인 등 총 536명이 참여해 8억7천7백여 만원을 조성.

여수캠퍼스 학업능력향상 지원금

기존 성적 위주의 장학금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이 3.00이상이며 도전점수 등록자
 - 지원금액 : A등급 150만원, B등급 100만원, C등급 50만원
 - 선발시기 : 6, 11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학년별 지급대상자 선발
(횟수 제한없음)
 - 선발기준 : 도전점수 고득점 및 여수캠퍼스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자 우선 선발
- ※ 자격 충족시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장학제도 문의

광주캠퍼스 학생지원과 062-530-1103, 1073, 1084
여수캠퍼스 교학과 061-659-6202

대학에도 학생기록부가 있다고?

내 경력 관리하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고등학교에만 학생기록부가 있는 게 아니다. 대학에도 학생활동기록부가 있다. 나의 학내외 활동과 다양한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이것을 학교가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가 그것이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서 차곡차곡 대학생활의 결실을 쌓아보자.

02

- 대상 : 전남대 재학생 전체(1~4학년)

- 왜 필요한 거죠?

기업은 학업성과 어학성적은 물론 인턴십,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자기계발활동기록부를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성공취업의 김잡이가 될 것이다.

- 무엇을 기록하나요?

영역	영역별 활동내용	최대점수
학점	-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 반영	250
외국어 영역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점수	250
취업/자기계발	- 교내외 각종 교과과정 외 활동 참여사항	150
활동 영역	(취업프로그램 및 학술활동 참여, 각종 서포터 활동, 조국순례대행진 등)	
수상 및 공모전 영역	- 대학내(단과대 이상), 국내외 입상자	100
인턴/현장실습	- 국내외 인턴십/현장실습, 국외연수 - 국외교류(학점취득이 있는 경우만 인정)	100
봉사활동	- 학내외, 국외 봉사활동, 현찰활동	50
자격증	- 전공관련 및 전공외 자격증	50
진로상담	- 진로지도교수 및 모든 교수와의 상담	50
총점		1000

- 어떻게 기록하나요?

전남대학교 취업포털(<http://jobs.jnu.ac.kr>)에서 자기계발활동기록부 해당사항 입력 →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 광주캠퍼스 취업지원과 및 여수캠퍼스 교학과(취업지원팀)에서 인증 → 발급(OS센터 자동발급기)

- 어디에서 활용되나요?

교내장학생·국외파견자 선발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가 필수적이다. 특히 4학년은 자기계발활동기록부를 통해 취업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업체 취업서류 제출 시 중요한 보충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여수캠퍼스에만 있다

쌓을수록 힘이 되는 도전점수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여수캠퍼스만의 경력 관리 시스템.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영어·전공·직업능력 등)의 참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받고, 그 점수에 따라 장학생 선발, 취업 추천 등에서 우선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3

- 대상 : 여수캠퍼스 재학생(학부 1~4학년)
- 무엇을 기록하나요?

분야	분야별 활동내용	최대점수
외국어영역	- 모의토의 참가, 모의토의 점수 향상, 정규외국어시험 참가, 정규외국어 시험 성적 향상, 대학내 토의특강 수강	400
전공	- 전공스터디그룹 참가, 그룹장·총무, 우수활동	175
취업	- 진로(심리) 검사, 취업프로그램 참가, 취업동아리 활동, 취업특강 참가, 취업서포터즈 활동, 자격증 취득	275
입상·봉사	- 대학내 입상자(단과대 이상), 국내 입상자, 국외 입상자, 봉사활동	150
총점		1000

-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도전점수 등록 : 확인 서류를 본부 4층 교학팀에 제출
- 도전점수 확인 : 교학과 또는 학과 전공 사무실에서 도전점수 등록현황 확인

- 도전점수 활용 분야

- 장학생 선발, 학업능력향상지원금 지급, 취업 추천, 국제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선발

- 기타사항

-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는 별도 관리·적용되므로 자기계발활동기록부와 중복되는 항목의 경우 중복 입력이 가능하다.
- 여수캠퍼스 학내 각종 프로그램 참가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문의

여수캠퍼스 교학팀 061-659-6201, 6204 (영어, 전공 프로그램 담당)
여수캠퍼스 취업지원팀 061-659-6233, 6236 (취업 프로그램 담당)



전남대학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_ 062) 530-5114 FAX_ 062) 530-1189
<http://www.jnu.ac.kr>

